

추미애 “아들 문제로 걱정 끼쳐 송구… 檢 개혁 완수”

“어떤 역경에도 원칙 지켜왔다”
檢 개혁 강조… 사퇴 불가 밝혀
국민의힘 “신과 소셜 쓰나…”
정의당 “부당한 권력 행사 유념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아들 서도(27)씨의 특혜 휴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제적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의 명령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7일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함께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보고받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는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을 수술했던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을 수술 받기 위해 병가를 냈다”며 “병원에서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부대로 들어가 남은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이고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받았다”며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부대로 복귀했고 대한민국 군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진실의 시간”이라며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묵묵처럼 지켜갈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검찰개혁 완성을 강조하며 장관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검은색은 검은색이고, 흰색은 흰색”이라며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상황 판단에 잘못이 있었으면 사죄의 삼보일배를 해 제 다리도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추 장관 ‘엄호’ 기조를 유지하며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어머니로서의 고민이 많았음을 알게 됐고, 응원하겠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묻는 것은 법의 문제이며 기회가 평등한지, 과정은 공정한지, 결과는 정당한지 묻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추 장관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말을 아껴왔다”는 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 건 수사에 대해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입장이 바뀌셨는지 적극적으로 페이스북에 쓰셨다”며 “수사관계자들도 이 페이스북 내용을 접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신과 소셜을 내놓았다. 요즘 말로 웃프기 그지 없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고 국민께 송구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추 장관은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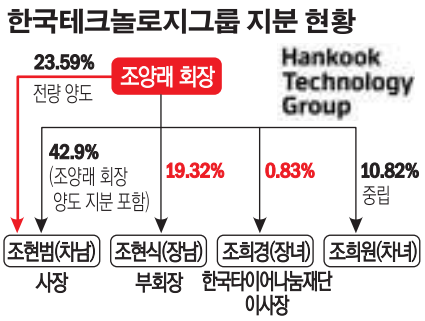
〈한국타이어 장녀〉

조희경 “경영권·재산 관심 無”… 한국타이어 ‘남매의 난’ 반박

“父, 투명한 경영 승계 소신에도 차남에 지분 23.59% 모두 넘겨
보유한 그룹 지분 0.83% 불과
장남과 성년후견 심판 목적 달라”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건 회사 경영이나 재산을 문제삼기 위해서가 아니다. 회사 내에서 아버지의 평소 뜻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며 당혹스러웠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방법이 성년후견 심판밖에 없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 지주사) 회장의 큰 딸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회사 경영권과 재



산에 관심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재단에 속한 대리인 A 씨를 통해 밝힌 자신의 분명한 입장이다.

조 이사장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자 “경영권 다툼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난무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앞서 조양래 회장은 6월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둘째 아들인 조현범 사장에게 자신이 보유한 그룹 지분 23.59%를 모두 넘겼다. 합산 지분 42.9%를 갖게 된 조 사장은 최대주주에 오른 상태다.

조 이사장의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이 결정이 자신이 알고 있던 평소 아버지(조 회장) 신념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13일 대리인이 전한 조 이사장의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조 이사장은 “아버지가 평소에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했다. 평소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도 미국이나 유럽의 가족기업처럼 전문 경영인과 자문기구, 재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사회 환원 대신 지분 승계를 택한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리인 A 씨는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게 본인에게 상속하길 재산이 있으면 재단에 기부해 달라고 했고, 조 회장도 이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송경용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사장은 대리인을 통해 “조 회장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상속하지 않고 나눔재단과 조 이사장이 운영하는 ‘함께 걷는 아이들’ 재단을 위해 내놓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부를 상속하지 않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유원선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사무국장은 “조 회장께서 2016년 하반기에 주식을 기부받을 조건이 되는지 물어서 이듬해 2월 성실 공익법인을 신청해 주

식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자문 검토를 받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조 이사장이 경영권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겨우 0.83%의 지분을 가진 조 이사장이 어떻게 최대주주를 상대로 다툼을 벌이겠느냐는 반문이다. 현재 조 사장을 제외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조희경 이사장(0.83%) △조현식 부회장(19.32%) △차녀 조희원 씨(10.82%) 등 30.97% 수준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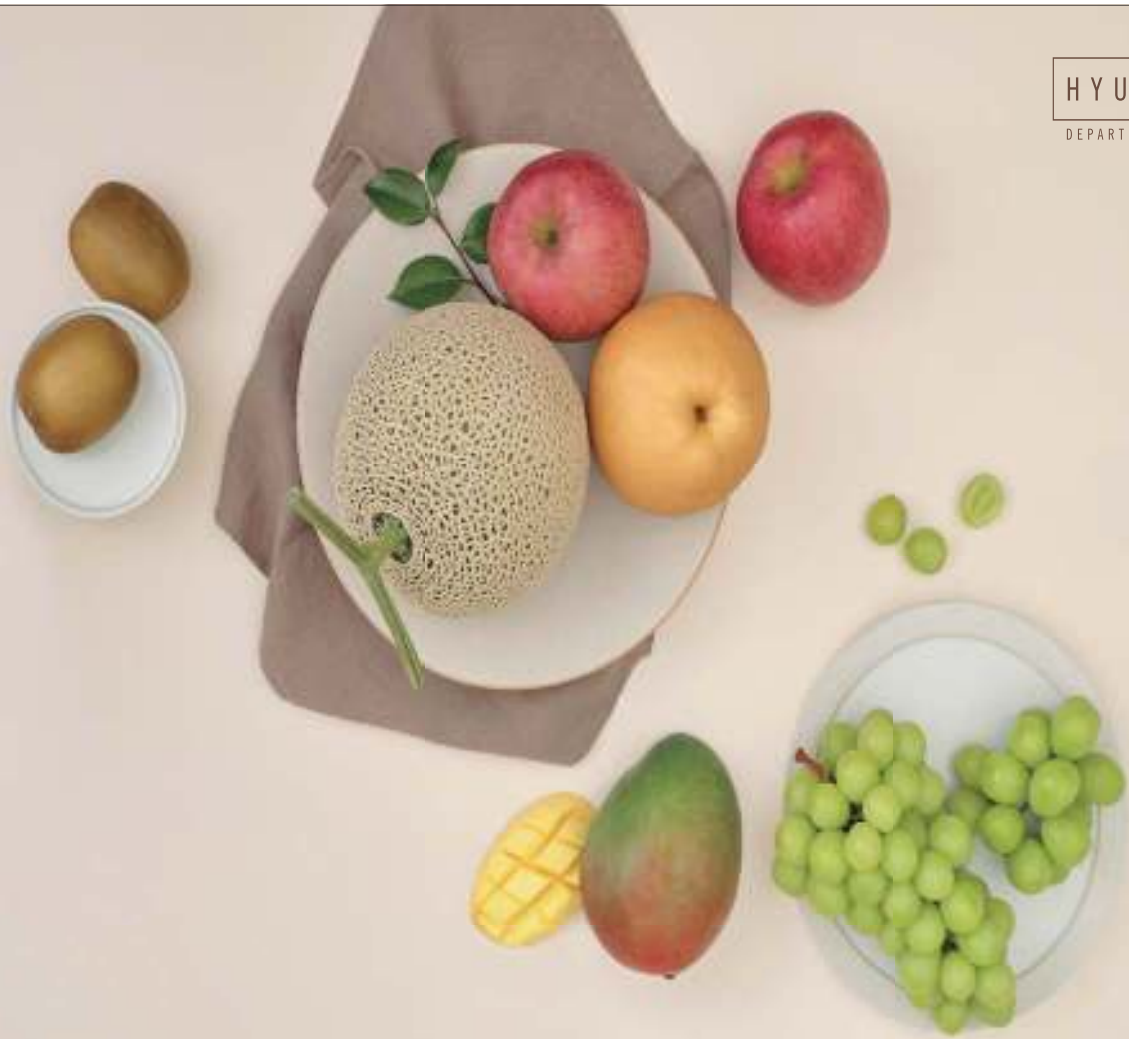
자신의 동생이자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과 손잡은 모양새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부회장도 지난달 조희경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이사장 측은 “조 부회장은 경영에 참여하던 분”이라며 “성년후견 심판에 참여하는 목적이 조 이사장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소중한 분께 최고의 선물을 전하실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이 기업 고객을 위해
방문 없이도 주문 가능한 선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품 맞춤 구성부터 안전한 배송까지
보내시는 분의 품격에 신뢰를 더해 전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80-850-2233 ~ 2234



객석 30% 겨우 채울 판... 공연 할지 말지 연일 저울질

‘거리두기 좌석제’ 민간 공연장까지 확대

관객 70% 돼야 겨우 손익분기점
8월 공연매출 2주새 ‘6분의 1’ 뚝

대관료 이미 다 냈고 연습도 끝내
일정 늦추거나 어쩔 수 없이 공연

연말 특수 놓치면 하반기 더 위기
공연업계 종사자 직접지원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직격탄을 맞은 공연업계 관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존 국공립 극장에만 적용되던 ‘거리두기 좌석제’가 민간 공연장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방역 수칙을 따르고 있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소극장일수록 상황은 더 안 좋다.

공연계는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공연하는 것과 개막일 연기 등을 선택지로 두고 연일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 대규모 공연도 잇단 조기 폐막= 대형 뮤지컬 제작사 관계자는 13일 “보통 목표 점유율을 70~75%로 삼는데, 거리두기 좌석제를 했을 때 객석의 30~40% 채울 수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익분기점은 커녕 객석의 절반도 채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내한 공연한 ‘오페라의 유령’은 거리두기 좌석제 의무화 조치 이후 대구공연을 6일 조기 종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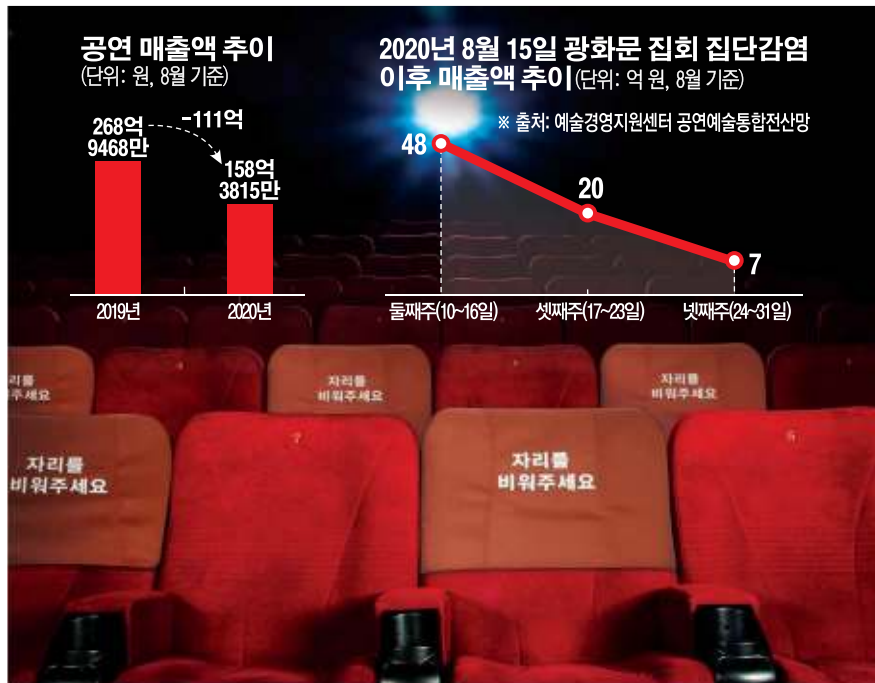
처음 계획한 폐막일은 이달 27일이다. 월드투어 주관사 에스엔코는 “코로나19 확산과 대구시의 거리두기 강화 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대한 예상 손실로 조기 종연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소극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극장 산울림 관계자는 “티켓값이 원래 저렴한 데다 거리두기로 좌석을 반으로 줄이다 보니 손익분기점을 전혀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공연을 올린 팀들이 (금액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8월 공연 매출액은 158억3815만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약 268억9468만 원)보다 111억 원 급감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집단감염 사태 이후 매출액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8월 둘째 주(10~16일) 48억 원이던 매출액은 넷째 주(24~31일)엔 7억 원으로 2주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금은 불이 꺼졌지만, 여전히 무대는 공연예술인들의 삶의 동력이다. 30대 연극배우 신모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지게차 운전을 하고, 12시에 레슨을 받고 대학로에서 공연 연습을 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돼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손실폭 줄이려 무대 올려”=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대를 올리는 건 ‘해도 손해, 안해도 손해’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학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연제작사 관계자는 “극장 대관료를 완납



했고, 시스템과 장비비용은 공연을 멈춘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연습도 다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을 끝까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1일로 개막일을 늦춘 뮤지컬 ‘베르테르’

제작사 CJ E&M 관계자는 “이미 집행한 비용이 많아 공연을 하면서 손실 폭을 줄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사전 예매율이 높았던 작품인 만큼 상황이 나아지고 거리두기 좌석제가 완화되면 관객이 올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갖

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배우, 스태프의 밥줄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하반기는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한 소극장 관계자는 “공연계는 연말 특수가 있는데 보조석을 넣을 수도 없고 무대와 객석 거리를 2m 유지하면서 거리두기 좌석제까지 하면 손해가 정말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 변형된 거리두기 좌석제가 등장했다. 이달 9일 개막한 40주년 기념 내한공연 뮤지컬 ‘젯츠’는 한 칸씩 띄어 앉는 ‘거리두기 좌석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연 당일 현장에서 좌석을 결정해 관객에게 제공한다. 모든 좌석을 한 칸씩 띄워 놓는 대신 동반인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보다 현실적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승 공연예술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연업계 종사자들에게 직접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모두가 피해를 본 상황인데 공연을 준비했거나 공연 계획이 있는 팀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ksh@

‘유료 온라인 공연’ 대안 될까

“현장서 볼 수 없는 콘텐츠 더해져야 ‘온라인 영상은 공짜’ 인식 개선 숙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공연계에 ‘유료 온라인 공연’이 화두가 됐다. 최근까지만 해도 공연계에서는 유료 온라인 공연이 저작권 침해는 물론 편집이 가미되는 영상 매체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뮤지컬평론가)는 13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니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 공연 유료화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연이 유료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무엇보다 ‘콘텐츠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유리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은 “온라인 유료 공연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콘텐츠가 더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고 스트리밍을 제공할 것인지도 숙제다. 현재 유료 온라인 공연을 하는 ‘잃어버린 얼굴 1895’의 경우 2만 원의 시청요금을 책정했다. 스트리밍이 종료된 후에도 3시간 동안 돌려보기가 가능하다. ‘신과 함께-저승 편’은 1만5000원, ‘모차르트!’는 3만~4만 원대에서 제공 중이다.

오프라인 티켓 최고가의 20% 선이다.

원 교수는 “온라인 공연 유료화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수용자의 관점에서 최대한 정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오프라인 풋값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선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온라인으로 공연 보기’가 뉴노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종현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단순히 듣고 보는 것을 넘어 공간과 현존을 느껴야 하는 공연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온전하게 옮겨놓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더욱이 ‘온라인에서 보는 영상은 무료’라는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을 고려할 때 온라인 공연이 기존 공연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공연을 펼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재난은 반복적으로 찾아온다. 당장에는 타격을 입은 수천 명에 달하는 예술가의 돌고래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시적으로는 현장 예술가들이 재난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공연 영상 제작 지원 제도를 강화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현경 기자 son89@

서강, 그 자부심!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서강이 아니다
대충 다닐 수 있다면 서강이 아니다
남들처럼 배운다면 이 역시 서강이 아니다

서강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서강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자부심

자유와 진리를 탐구하고
두려움에 맞서 새로움에 도전하며
정의를 구현하고 나눔을 몸소 실천한다는 뜻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뜻

**이 시대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

서강대학교

2021학년도 서강대학교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4(목) 10:00~9. 28(월) 18:00

자세한 사항은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s://admission.sogang.ac.kr/>) 참조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시험	최종(최초) 합격자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필수] 자기소개서 2020. 9. 24(목) 10:00~9. 29(화) 17:00 ※2차 : 2020. 12. 3(목) 10:00~12. 7(월) 12:00	자연 2020. 12. 5(토) 인문 2020. 12. 6(일)	2020. 12. 28(월)~12. 30(수) 16:00	2020. 12. 31(목)~2021. 1. 5(화) (※합격통보 마감 : 2021. 1. 4(월) 21:00까지)

수출·소비·고용 다 줄었다…구직포기 절반 2030

7개월 연속 수출 감소…내수도 재난지원금 반짝 효과 그쳐 미취업 장기화에 취업자 수 내리막…코로나 이전 불황 한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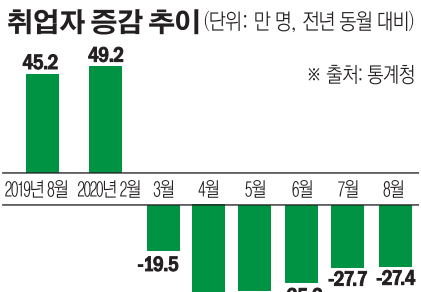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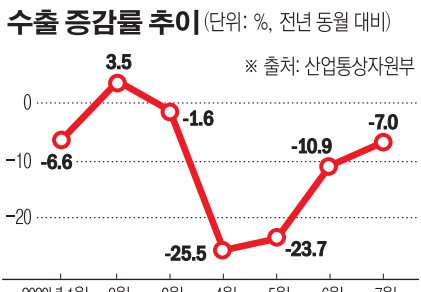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은 6개월 동안 두 가지 경로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외 확산은 각국의 봉쇄 조치와 글로벌 수요 위축, 국내 수출 및 제조업 부진으로, 국내 확산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부활동 위축, 소비·서비스업 생산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가 유력하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3월 이후 7개월째(9월은 1~10일 기준)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6월엔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7월에는 감소폭이 7.1%로 축소됐으나, 8월에는 9.9%로 다시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석유제품, 석유화학이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그나마 이달엔

감소폭이 0.2%로 축소됐다. 단 올해엔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하루 길다. 이를 고려하면 9월 수출액도 11.9% 감소했다.

수출 부진의 장기화로 국내 제조업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출하는 감소세, 재고는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6월 0.5%까지 축소됐던 제조업 생산 감소폭(이하 전년 동월 대비)이 7월 다시 2.4%로 확대됐고, 재고는 축소됐으나 전월 대비로는 6월 1.0% 감소에서 7월 0.2% 증가로 전환됐다.

내수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2~4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5월 1.7%, 6월 6.3%로 회복됐으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종료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축소된 7월에는 0.5%로 둔화했다. 8월 이후에도 지표 개선



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현 2.5단계)가 상향돼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화

산만 문제면 소비 감소에 그쳤겠지만, 글로벌 팬데믹으로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이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전에 있었던 경기 악화 문제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출·소비 위축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 부진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3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대별로는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하리인 30~40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 채용 축소, 30~40대는 기존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고용난의 주된 원인이다.

특히 이들의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에는 실업자에 해당하는 구직활동 인구와 실직자들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8월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가 전년 동월보다 26만7000명 증가했으나, 경제활동 인구는 26만7000명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53만4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학업·가사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인구가 29만 명 확대됐다. 통상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실업기간이 길 어지면 구직활동 포기도 늘어 실업자가 줄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는다. 연령계층별 비경제활동인구는 청년층(15~29세)에서 3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구직단념자는 13만9000명 늘며 증가폭이 전월(5만5000명)보다 8만4000명 확대됐다.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 모두 역대 최대치다. 총규모는 68만2000명으로 이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24만9000명, 11만 명으로 52.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외환·금융위기(1998~2008년) 전후로 경제활동을 시작한 세대로, 상당수는 외환·금융위기 당시 신규 채용이 줄자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했다. 그 결과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고용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8월에도 두 연령대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1.6%포인트(P), 1.7%P 하락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유일한 해법’ 백신·치료제 연내 개발이 관건

전 세계 1330건 임상 진행 국내선 백신보다 치료제 빨라 셀트리온·녹십자 가능성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이 6개월을 넘어섰지만 결국 사태 종식의 해결책은 치료제와 백신뿐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조기 개발의 성공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13일 글로벌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기준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는 2893만여 명으로 2900만 명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는 91만49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임상정보 사이트 클리니컬트라

이얼즈에는 총 1330건의 코로나19 관련 임상이 등록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총 14건의 상용화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치료제가 12건, 백신이 2건으로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빠른 치료제 개발에 좀더 무게가 실린다.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가운데 연내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와 GC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임상 1상 결과 안전성을 입증, 글로벌 2/3상을 준비하고 있다. 임상 2상에서 효능을 확인하면 올 연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GC녹십자는 이번 주부터 임상 2상의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한다. 연말까지 임상 2상을 진행하는 한편,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통한 환자 공급을 예상하고 있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장에서 다양한 항체가 들어 있는 면역 단백질을 분획해 만든 고면역글로불린으로, 개발 속도가 빠르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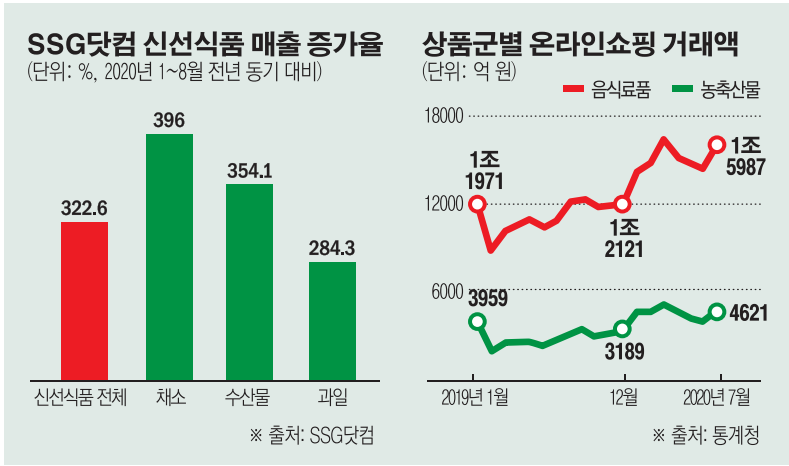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백신 개발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임상 3상에 진입한 회사는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8일 영국의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에게 원인 미상의 질환이 발견되자 글로벌 임상을 잠정 중단했으나, 12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의 승인에 따라 임상을 재개했다. 10월로 예정한 임상 중간결과 발표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개발 성공을 선언했지만, 국제 사회는 효능과 안전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9개 글로벌제약사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규모·고품질의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백신만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백신을 둘러싼 과도한 속도 경쟁을 경계했다.

유희은 기자 euna@



신선식품도 온라인 쇼핑이 대세

1~7월 식품 거래액 48% 늘어 SSG닷컴 채소 매출 5배 육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이 언택트(비대면)로 급속히 옮겨가면서 신선식품도 온라인 구매가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각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물류센터를 추가하고 주문 플랫폼을 확대하는 등 앞다퉈 급성장세에 대응하고 있다.

13일 SSG닷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선식품 전체 매출은 322.6% 증가했다. 채소 매출이 396% 늘었고, 수산물과 과일 매출도 각각 354.1%, 284.3% 뛰었다.

홈플러스와 GS프레시·롯데슈퍼의 신선식품을 당일 원하는 시간에 배송해 주는 G마켓과 옥션의 ‘당일배송관’ 거래액도 8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120% 늘었다. G마켓과 옥션 당일배송관에서 가장 높은 구매율을 기록한 5가지 품목은 쌀, 과일, 소고기, 돼지고기, 축산가공식품이 차지했다.

이 같은 추세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식품군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올해 1~7월 13조773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5% 뛰었다. 이 기간 온라인 쇼핑 거래 총액 증가율 15.9%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성장세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 역시 올 들어 7월까지 58조8256억 원으로 전년보다 22.1% 증가했는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식품군은 56.4% 치솟았다.

그간 신선식품은 각 상품마다 신선도와 모양 등이 균질하지 않아 눈으로 직접 보고 사는 카테고리였고,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믿고 있던 최후의 보루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신선식품 소풍마져 이커머스를 대세로 굳히는 기폭제가 됐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업체는 배송 능력 확충과 주문 플랫폼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SSG닷컴은 올 상반기 PP센터 캐파를 2월 대비 20% 확대했고, 배송 차량도 60대 이상 추가 확보했다. 특히 수도권 수요에 대비해 경기권에 새 물류센터 부지를 물색 중이며, 5년 내 7개의 물류센터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G마켓과 옥션, 11번가에 이어 최근 네이버 장보기 서비스에 입점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21년까지 전국 전 점포에 온라인 물류 기능을 장착하고, 피커는 기존 1400명에서 4000명, 콜드체인 배송차량은 기존 1000여대에서 3000여 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쿠팡은 대규모 국가산단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데 이어 대전에는 신선식품 전용 센터를 짓는 등 전국 인프라 확보에 힘을 준다. 이어 충북 음성과 김천에도 각각 1000억 원을 투자해 물류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2000억 원 투자를 유치한 마켓컬리는 투자금 일부를 올해 말 오픈 예정인 김포 물류센터의 설비 고도화에 쓰기로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경총 100대 기업 69곳 설문 절반 “생산성 90% 이상” 호평

국내 100대 기업 사무직 직군의 90%가 가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재택근무자 업무 생산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이전보다 재택근무 활용이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매출 100대 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 중 공기업 9곳을 제외한 기업들로, 응답 기업 수는 총 69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 88.4%가 사무직 직군에서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응답하지 않은 기업들까지 포함한다

해도 100대 기업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 중인 셈이다.

2.9%는 곧 시행 예정(계획 확정), 재택근무 시행 계획조차 없는 사업장은 8.7% 수준이었다. 다만 이 중 일부 기업은 3단계 격상 때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직무 특성상 재택근무 시행 기업은 없었으나, 필요할 때 연차휴가 외 별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식사·휴식시간 조정, 휴게실·구내 식당·통근 버스 밀집도 저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응답했다.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업마다 달랐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구성원을 2조 또는 3조로 나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교대 조 편성 등 순환 방식(44.4%)이었고, 재택근무 필요인력을 선별하거나 개인 신청 방식이 27%, 필수 인력 제외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이 15.9%였다.

기업들은 사무직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업무 생산성에 대해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정상근무 대비 90% 이상이라는 평가가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중(46.8%)으로 나타났다. 17%가 70~89%라고 응답했다. 70% 미만이라고 평가한 비중은 10.6%에 불과했다. 재택근무 생산성이 정상근무 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재택근무 수용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 중 절반이 넘는 53.2%가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 활용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33.9%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재택근무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되기 위해서는 성과중심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과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 개선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i1228@

‘태양광’ 한화 76.5% 꺾충... ‘배터리’ LG 45% ‘그린 모빌리티’ 현대차 36% 증가

빨라진 디지털 전환, 10대그룹 '시총 지도' 바꿨다

위기는 산업지도를 바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빨라진 '디지털화'와 '탈석탄'은 세계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와 산업·기업 지형도를 답아낸 시기총애 순위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선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놓고 반도체와 '포스트 코로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이투데이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10대 그룹 시가총액(우선주 포함 132개)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포착됐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일(3월 11일)부터 13일까지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증감 추이를 집계한 결과, 한화그룹 시총이 이 기간 76.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LG그룹(44.8%), 현대차그룹(36.1%), SK그룹(20.6%), 삼성그룹(12.6%) 등 총 8개 그룹이 이 기간 시총을 늘렸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자 및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적극 투자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상승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디지털과 그린(환경)이 핵심인 한국판 ‘뉴딜 사업’과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인다는 특징이다.

유통사업 비중 높은 GS그룹 -6%
'철강·조선 불황' 현대重 -3.3%

한화그룹은 한화솔루션의 강세에 힘입어 시총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한화그룹의 시총은 8조4061억 원에서 14조8405억 원으로 76.5%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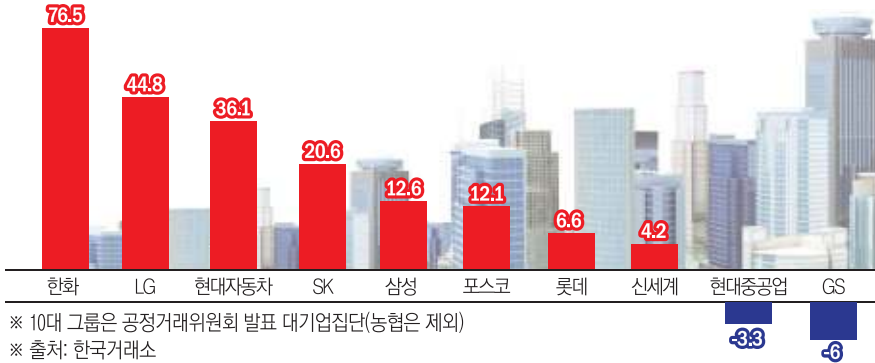
한화그룹 내 11개 종목 모두 올랐지만, 사실상 한화솔루션 한 기업에 그룹 시총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한화솔루션 시총은 4조7615억 원(179.8%) 늘면서 한화그룹 시총 증가액의 74%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한화솔루션에도 893억 원 (767.6%) 오르면서 동반 상승했다. 한화솔루션은 10대 그룹 종목 132개 중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도 나타났다.

이 같은 강세는 한화솔루션이 태양광과 수소 중심의 그린뉴딜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가능했다. 최근 한화솔루션은 미국 수소 트럭 업체인 니콜라와의 협업 계획을 밝히며 수소 사업 진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자회사의 강세에 지주사도 덩달아 주목 받으면서 한화와 한화우는 각각 45.6%, 158.9% 증가했다. 이에 한화그룹은 7월 말까지만 해도 시총 증가율이 26%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한 달 새 급증하면서 높은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10대 그룹 시총 증감률
(단위: %, 3월 10일~9월 11일 기준, 우선주 포함 132개 대상)



성장률(76.5%)을 기록할 수 있었다.

LG그룹도 강세를 보였다. 이 기간 LG 그룹의 시총은 86조2060억 원에서 124조 8496억 원으로 44.8% 증가했다. LG화학이 시장 주목을 받으면서 그룹 시총 성장에 힘을 보탰다. 이 기간 LG화학 시총은 26조3662억 원에서 49조7676억 원으로 88.8% 올랐으며, LG화학우 역시 93.2% 뛰었다.

LG화학은 올해 상반기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누적 점유율 1위(24.6%) 소식을 알리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뉴딜 분야 대표 종목군으로 구성된 'KRX BBIG K-뉴딜지수'에서 배터리 대장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현대차그룹 역시 전기차·수소전기차 기반의 그린 모빌리티 보급 추진을 선언한 정부의 뉴딜 사업 수혜 기대에 힘입어 선

전했다. 현대차그룹 시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6.1%(약 26조 원) 올랐으며, 현대차에서만 15조 원가량이 늘었다.

반면, GS그룹(-6.0%), 현대중공업그룹(-3.3%) 등 2곳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후퇴의 여파를 떨치지 못했다. GS그룹은 유통 비중이 사업구조상 국내외 소비 냉각에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기간 GS와 GS리테일의 시총은 각각 17.5%, 4.7% 감소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경기 민감 업종인 철강, 조선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총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현대일렉트릭은 그린 뉴딜 기대감에 힘입어 117.7% 올랐지만, 한국조선해양(-9.8%), 현대미포조선(-7.3%) 등의 약세로 시총이 줄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요 그룹
사이에선 디지털·그린으로 대표되는 미
래 성장동력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시종 증
감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증시 이끄는 '개미군단'

지난달 주식시장 회전율 32.4%… 연중 최고

코스피 기관·외인 매도물량
동학개미가 받아내 지수방어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 활발
증권사 개인투자자 유치 경쟁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변방에 있던 개미 군단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에 속절없이 무너지던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나 시장을 주도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증권가도 수수료 인하 등으로 개미 모시기에 나서며 달라진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8월 바이오로 역대급 단타 친 개미군
단 =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코스피, 코스닥 시장 회전율은 32.4%에 달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 12.1%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주식시장에서 회전율은 일정 기간 주식이 얼마나 거래됐는지를 나타낸다. 높은 회전율은 활발한 주식 매매를 의미하며 최근 상승장에서 단타 매매가 성행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주로 대형주로 구성된 코스피시장도 손바뀜이 활발했다. 8월 코스피시장 회전을 20.3%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7.6%) 대비 1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8월 코스피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은 각각 3조5600억 원, 2조8500억 원 팔아치웠지만 개인이 6조1700억 원 사들이며 기관과 외국인이 내놓은 물량을 대부분 받아 냈다.

개인투자자 참여도가 높은 코스닥시장은 코스피보다 5배 더 높은 회전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코스닥시장 회전율은 94%로 집

계됐다. 8월 코스닥시장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14조1800억 원 규모로 훌쩍 뛰어났다.

특히 회전율이 높은 종목은 코로나19 이후 변동폭이 커진 제약-바이오 업종에 집중됐다. 지난달 일신바이오 회전율은 1547.63%를 기록하며 가장 손바뀜이 잦은 종목으로 꼽혔다. 이어 YBM넷, 웰크론, GH신소재, 우리들제약, 메가엠티, 우정바이오 등도 1000%가 넘는 회전율을 기록했다.

◇“개미 잡아라”...수수료 낮추며 개미
유흥하는 증권사 = 개미들이 대거 증시에
뛰어들자, 증권사들은 최근 신규 수익원으
로 떠오른 IB부분 등이 어려움을 겪는 중
에도 짹짹한 수수료 수익으로 실적을 떠받
치고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가 해외 증시로 대거 진출하며 '서확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해외 주식 수수료는 국내 증시 수수료보다 최고 10배가량 높아 증권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의 올 상반기 해외 주식 수수료는 222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756억 원 대비 194.1% 늘었다.

특히 증권업계는 개미들의 증시 유입과
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수수료 인하 카드
를 꺼내들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0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삼성증권은 14일부터 고객에게 부과되는 거래 수수료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KB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다른 증권사들도 검토 중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이인아 기자 ljh@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EASY ALL

ALL

ALL

감탄사가 이름이 된카드

KB국민 Easyall카드



준법감사인 심의필 200724-02427-ADP (2020.07.24 기준)

KB국민카드

〈경제자유구역〉

새 경자구역 ‘순풍’… 정치권, 활성화 패키지법 발의

지자체 자금 지원·감세 혜택… 지원 대상 모든 입주 기업으로
양향자 “AI·미래차 등 탄력… 기업 지방이전·리쇼어링 가속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은 14일 신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3종 세트를 대표 발의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한시적 세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 3법(이하 경자구역 패키지법)을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총선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 의원에 앞서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도 경제자유구역 지원을 두고 방향을 같이 하는 법안을 내놓으며 당내 관심이 집중된 분야이기도 하다. 경제자유구역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K-뉴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당에서도 21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 혁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주요 골자는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도 깎아준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기존의 외국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패키지법’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신규 지정 경자구역에 한해 5년간 필요 자금 우선 지원(개발 착수 시점부터) － 지원 대상 확대(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 → 모든 입주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 면제(최초 5년간 면제 후 그다음 3년간 50% 감면) － 재산세 면제 및 감면(최초 5년간 면제 후 그다음 3년간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인세 면제 및 감면 － 최초 4년간 면제 후 그다음 2년간 50% 감면



투자기업·국내복귀기업 등에서 모든 입주 기업으로 확대한다. 신규 경자구역에 한해 일정 기간 필요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같은 기간 국유·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도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정 기간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도 담

았다. 올해에는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AI), 미래차, 스마트 에너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계를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광주 등 신규 지정

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례로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과 함께 광주시는 2027년까지 1조6279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10조364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3조244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만7496명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신규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AI, 미래차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고 있어 한국판 뉴딜의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며 “본 법안에 담긴 큰 폭의 세제 혜택들이 첨단 산업 기업들의 지방 이전과 리쇼어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곧 추석인데… 식탁물가 비상 1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2020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 보고서에서 추석 성수기(17~30일) 농산물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미와 태풍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급 여건이 악화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13일 서울 가락시장. 연합뉴스

“작년 한계기업 18%… OECD 중 5위”

전경련 “서비스업 38% 최고”

한국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채 못내는 기업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가입국 중 24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계기업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17.9%로 다섯 번째로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OECD 평균(12.4%)보다 5.5%포인트(p) 높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증가폭도 컸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5.4%에 2년 새 2.5%p 증가했다. 6번째로 큰 폭이다. 작년 기준 한계기업 비중이 한국보다 높았던 미국, 캐나다, 스페인, 그리스 등과 비교해도 높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OECD 국가 중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순위는 향후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높았다. 터키(40.0%)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보다 낮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레저, 관광, 호텔업 등 서비스업종이 충격을 받은 만큼 이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 밖에 부동산업(30.4%), 운송업(24.3%) 등도 높았다. 반면,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낮은 업종은 식품품 소매업으로 4.7%였다. 유한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향후 한계기업이 폭증할 우려가 큰 상황이고, 한계기업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한계상황에 빠진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국표원 ‘그래핀 전기적 특성 평가법’ 국제표준 채택

한국이 제안한 차세대 소재·부품·장비 핵심 소재인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한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이 5년여의 노력 끝에 IEC의 국제표준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제표준명은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평가법’으로 최초 제안자는 이하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센터장이다. 플레이크 그래핀은 실리콘, 구리 등을 대체하여 배터리 전극 코팅, 수처리 필터, 방열재료, 초경량 복합 소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핀은 벌집 모양의 평면구조로 결합된 탄소(C)로 이뤄진 나노물질로 전기전도성이 구리보다 약 100배 뛰어나고, 금속에 비해 200배 단단하며 1000배 이상 가벼운 특성을 지닌 첨단 소재다. 플레이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 평가법은 소재, 부품기업에는 생산한 소재에 대한 객관적 사양을 제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배터리, 반도체, 환경 필터 등 응용 분야에서는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소재, 부품 산업의 생산, 개발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국표원이 지원하는 국제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국가기술자격’ 응시 근로자 늘고 학생 줄어

작년 재직자 응시 비율 30%
40대 이상 중장년 노후 대비

지난 5년간 임금근로자(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학생의 응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이 업무수행 향상과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근로자 응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응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생 이모작 준비 등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13일 공개한 2015~2019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146만3244명) 기초통계 보고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7.6%였던 재직자의 국가기술자격 응시 비율이 매년 꾸준히 늘면서 2019년 30.2%로 확대됐다. 반면 학생의 경우 2015년 37.8%에서 2019년 35.1%로 응시 비율이 줄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기사 종목에서 비율 격차가 두드러졌다. 작년 재직자의 기사 응시 비율은 45.4%로 2015년 대비 3.3%포인트(P) 증가한 반면 학생 비율은 30.9%로 5.1%p 감소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직(전직)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응시한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재직자 응시생 44만2161명 중 36만4093명(82%)이 자격과 현재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30만2706명(68%)은 근무처에서 자격 취득자를 우대한다고 응답했다. 근무처에서 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주요 사항으로는 채용이 55.1%로 가장 많았고, 임금(수당 등)이 23.1%, 인사고과 11.7% 순으로 집계됐다. 취업 이후 급전적인 보상이나 경력 측면에서도 국가기술자격이 도움을 주는 셈이다. 응시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0~30대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40~60대 이상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코로나 대책… 美 ‘실업급여’ 유럽 ‘단축근로’

한은 ‘주요국 실업대책 평가’
“한국에 대입 좀 더 지켜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실업 문제가 확산한 요즘, 미국과 유럽에선 각기 다른 실업 대책을 꺼내 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사후 정책, 유럽은 사전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 정책을 한국 산업구조에 대입하기 위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의 실업대책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과 관행,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높은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량해고가 발생하자, 경기부양법을 통과시키고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4월 중 미국 실업급여 신청건수는 2월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독일 및 프랑스는 각각 10.4%, 24.7% 증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보고서는 실업급여가 사후적 성격의 조치로서 가계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후적 조치인 만큼 사전에 실업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단축근로와 일시휴직 등 고용유지 정책을 주로 활용했다. 독일은 단축근로 수당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올해 말까지 정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정보보호금 산정 기준을 시간당 정액에서 임금비례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고서는 단축근로가 실업 발생을 억제하고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올해 실업률 전망에 따르면 단축근로를 적극 활용한 국가는 실업률이 전년 대비 2~3%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는 약 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 같은 고용 유지도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구조적 실업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국과 유럽의 대처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사후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에 도입하는 부분 역시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중간 정도”라며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다고 판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SK하이닉스 첨단동화

해님 달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만약 이때,
SK하이닉스 초고속 D램*
기술이

없었다면

있었다면

맛보기 떡이 떨어지자
끝내 엄마까지 잡아먹는다

어린 남매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해님 달님이 된다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끊어져 죽는다

엄마는 최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맛집을 추천한다

호랑이에게 극찬 리뷰를
받은 맛집은 대박이 난다

그 성공을 지켜본 엄마가
맛집 공유 플랫폼을 런칭한다



맛집 어플로 성공하여
엄마랑 남매는 행복하게 살아간다

첨단 반도체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D램

반도체 기억소자로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기능을 함.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

민주당 왜 이러나... ‘당직 사병’ 이름 공개 일파만파

황희 “‘단독범’ ‘산에서 놀던 철부지’” 비난하며 수사 촉구
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저촉”... 금태섭 “제정신인가” 비판
비판 거세자 황 “유감”... 글도 ‘현 병장’ ‘단순제보’로 수정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자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당직 사병에 대한 실명과 얼굴 공개는 물론 ‘단독범’이라는 표현으로 범죄자로 단정 지은 것에 대해 범법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공범 세력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단순한 검찰개혁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분열

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며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의 글이 올라오자, 여야를 불문하고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은 엄연히 범죄라는 목소리가 높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분이 공익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이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된다.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건 뻔박 범죄가 아닌가 싶다”면서 “윤미향 사건 때는 이용수 할머니도 토착왜구라고까지 공격했던 자들이 당직 사병을 공격 못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고발자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을 보니 다시 1980년대로 주저앉은 것 같다”며 “그렇게 역사가 후퇴할 수는 없다. 당신들이 조국, 추미에라면 우리는 당직사병”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한때 같은 당 동료였던 금태섭 전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당, 여야, 진보 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또 “촛불 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최근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 았다튀 한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하루종일 말할 수 없이 마음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여당 의원이 한 청년의 이름을 10여 번 부르면서 범인으로 규정했다”며 “부끄럽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이른바 86세대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아예 문패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

게 가한 폭력이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네”라고 썼다.

황 의원은 생각보다 논란이 커지며 몇 시간 만에 수백 건에 달하는 부정적 댓글이 달리자 애초 거론했던 실명을 슬그머니 ‘현 병장’으로 수정했다.

또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단독범’ 대신 ‘단순제보’라고 수정했고 ‘공범세력’이라는 표현도 ‘정치공작세력’으로 바꿨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저의 의도와 달리 현 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쳐진 부적절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현 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가 담긴 상자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가 14일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4차추경 심사 ‘통신비·돌봄’ 최대 이슈

野,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접종’
돌봄·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논란
민주당, 쟁점 사안 재논의 주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놓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심사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 중 특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돌봄비용 지원, 지급 대상 형평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 명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정의당도 반대 입장이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안 등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자 예방접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민주당이 재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초등 돌봄비용 지원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 이하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 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동 총 532만 명에 대해 총 1조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금 뿌리기식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

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여야 모두 4차 추경 규모 중 절반에 가까운 3조 원대 배정 등 큰 틀에서의 취지는 동의하고 있지만 선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8월 16일’ 이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준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성공, 가게 철거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해, 문턱이 높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0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

전문직 중에선 약국, 동물병원 등이 제외됐지만, 동네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밖에도 같은 직종 내 지원 기준이 다른 점도 불만을 야기했다. 일례로 개인 택시 사업자의 경우 100만 원의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인 근로자 신분의 택시기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당정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세운 만큼 추경안이 목표 시한인 오는 18일 통과될지 주목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www.ktr.or.kr

KTR

기업의 날개가 되다

7개 해외지사와 전 세계 170여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직접 지원합니다.

시 험	소재부품·건설·화학·환경·전기전자·전력에너지 의료바이오·헬스케어·국방·기간산업
인 증	국내인증(KS·KC·제품인증·유기농화장품·온실가스검증 등) 해외인증(미국NSF·유럽CE·유라시아EAC·중국CCC·일본JIS·중동SASO 등)
컨 설 톱	교육사업(KOLAS 등 법정교육·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기업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TBT대응·1381 인증표준콜센터 등)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래픽처리장치〉

‘GPU 강자’ 엔비디아, ARM 장착하면 ‘반도체 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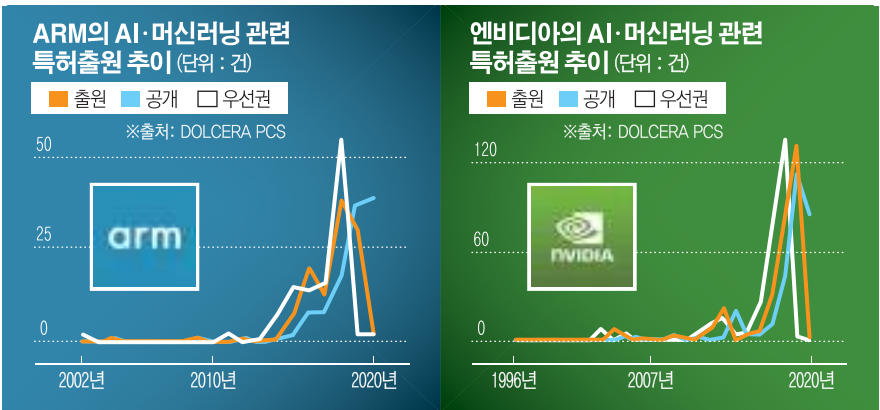
‘데이터센터 왕좌’ 노리는 엔비디아
ARM 인수 땀 CPU로도 영역 확장
독점적 지위 남용땀 삼성도 타격

세계 최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설계·제조업체 엔비디아의 영국반도체 설계업체 ARM 인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시가총액에서 미국 인텔을 제치고, 업계 2위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엔비디아가 ARM까지 손에 넣게 되면 ‘반도체 과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GPU 설계·제조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갖고 있으며, 세계 스마트폰용 반도체 설계에서 거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데이터센터 등의 시장까지 진출했다.

이중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기술이다. 엔비디아가 5월에 발표한 데이터센터용 GPU ‘A100’은 이전 프로세서 대비 성능이 최대 20배 향상된 것으로,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탐내고 있다. 7월 말, AI 계산 시 반도체 성능을 평가하는 컨소시엄 ‘MLPerf’가 8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A100은 모든 항목에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반도체 중 최고의 훈련 성능을 기록했다.

현재 IT 산업에서는 AI에 기반한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분야가 고속 성장하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



에서 왕좌를 노리는 엔비디아로서는 고무적인 결과다.

6월 끝난 2021회계연도 2분기에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이 17억5000만 달러(약 2조7725억 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성장률은 무려 167%에 달했다. 여기에 이스라엘 컴퓨터 네트워킹 부품업체 멜라녹스테크놀로지까지 산하에 넣으면서 엔비디아의 자체 생태계도 커지고 있다. ARM까지 추가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되는 셈이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닌텐도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에서부터 자율주행차량용까지 ARM의 기술을 채용하는 등 ARM과 수년 동안 파트너 관계를 맺어왔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때 업계 전문가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겼다. 소프트웨어도 사물인터넷(IoT)과 AI 시대를 염두에 두고 업계 사상 최대 금액에 ARM을 인수했지만, 시너지 효과는 커녕 적자만 보다가 결국 매물로 내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ARM 인수로 GPU 강화는 물론 데이터센터에도 함께 사용하는 중앙처리장치(CPU)로의 진입이 현실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선 업계의 반감이 크다. ARM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든 모바일 기기에 반도체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관련 특허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거나 특허료를 높게 받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전자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삼성은 스마트폰의 두뇌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설계를 ARM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만일 엔비디아가 ARM 인수 후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삼성은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을 사용해 모바일 AP를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타사 AP를 구매해야 할 수도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송영록 기자 syr@

“ARM 넘겼단 일자리 위협” 英 정치권, 반대 기류 확산

“기술 주권 미국에 뺏길 수도
수천 개 영국 일자리도 위협”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영국 ARM홀딩스 인수를 놓고 영국 정치권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노동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와 집권 보수당이 영국의 기술 주권이 해외 포식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고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상임장관은 “실리콘밸리 기업(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궁극적으로 영국의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 대변인은 “정부가 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ARM 매각이 영국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정부는 이 문제를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거래에서 조건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치권은 지난달 일본 소프트뱅크가 ARM을 매각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촉각을 곤두세워왔는데, 12일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왔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층 반응이 격해진 모양새다.

ARM은 전 세계 기업들이 만드는 수백만 개의 전기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으로, 영국 IT 업계의 자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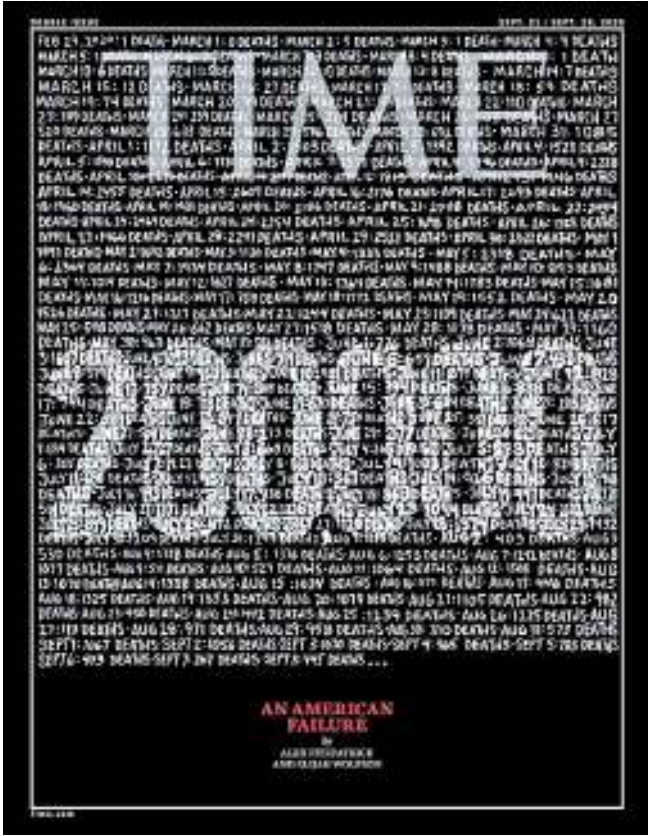
으로 평가돼 왔다. ARM은 전 세계에 6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 3000명이 영국에 있다.

밀리밴드 장관은 또 “ARM은 영국의 핵심 기업인데, 엔비디아에 막힐 위험 앞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거기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영국 내 일자리를 포함해 이번 인수의 잠재적 결과들을 정부가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밀리밴드는 한 회사의 손에 너무 많은 권력을 쥐어 주게 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기술 분야에서 독점 문제는 훨씬 더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2016년 소프트웨어가 ARM을 인수했을 때처럼 리더십을 발휘해 엔비디아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RM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헤르만 하우저는 이달 초 영국 정치 전문지 ‘뉴스테이츠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거래가 ARM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지난달 BBC 인터뷰에서는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RM 비즈니스 모델의 기본 전제 중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엔비디아의 목표는 ARM을 자사의 우산 아래에 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엔비디아는 ARM의 라이선스를 제한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코로나 사망자 20만명… “미국의 실패”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검은색 바탕에 ‘200000’이라는 커다란 숫자를 적은 최신호(21~28일) 표지를 공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한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AN AMERICAN FAILURE(미국의 실패)’이라고 적었다. 타임이 표지 테두리를 평소의 붉은색이 아닌 검은색으로 두른 건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다. 표지 디자인 담당자는 “재앙에 둔감해진 이들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오른쪽 사진은 2001년 9월 11일 자 타임 표지. 출처 타임

日 1인자 된 ‘딸기밭 사나이’ … ‘스가시대’ 개막 초읽기

자민당 총재선거 압승 확실히… “아베정책 계승” 코로나 경제해법 숙제

‘포스트 아베’를 뽑는 14일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사진) 관방장관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다. 공식 임기는 아베 신조 총리의 남은 임기를 물려받아 내년 9월까지이지만, 그 이후 집권 여부는 1년 간 그의 역량에 좌우될 전망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국회의원 본인과 비서, 당내 파벌 간부 등을 취재해 지지표를 분석한 결과, 스가 장관이 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전체의 70%인 300표에 육박하는 표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아베의 정책을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천명한 스가 장관은 13일 토론에서 “고용을 제대로 확보하고 기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2분기 국내총생산(GDP) 하락률이 전후 최대를 기록하고,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모든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10일 민영방송 TV도쿄에 출연해 ‘소비세를 추가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가 바로 다음 날 “10년간은 필요없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일본 경제가 후진한 이유로는 소비세를 인



상도 거론되는데,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수 지지를 굳힌 상태에서 민감한 문제를 선불리 꺼냈다가 선거결과가 뒤집히는 불상사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딸기 농가 출신인 스가 장관은 요코하마시 시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 무명의 존재였으나 2012년 아베가 총리로 복귀하면서 발탁돼 30년 만에 세계 3위 경제대국 총리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 신흥 부호’ 뒤에 강제노동

돈벼락 맞은 말레이 고무장갑 업체
해외 근로자 열악한 근무환경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특수로 돈방석에 앉은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생산업체들의 그늘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물이 있었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고무장갑제조업협회(MARGMA)의 분석 결과, 전 세계 고무장갑 공급의 60%가 말레이시아에서 나왔다. 올해 팔려 나간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은 2200억 개로, 벌어들인 돈만 52억 달러(약 6조17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업계 선두주자인 탑글로브의 경우, 46개 공장에서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장갑의 25%를 생산했다. 6월 11일 기준, 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0% 폭증한 8400만 달러를 기록, 회사 설립 이래 최고의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회사 주가는 5배 폭등했고, 창업자인 림위 차이의 자산도 25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씁쓸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고무장갑 업체가 축포를 터트리는 동안, 정작 고무장갑을 생산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비행기 샅조차 벌지 못한 채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서다.

고무장갑 생산업체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탓에 자국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대

부분을 외국인으로 메꾸고 있다. 탑글로브와 하르타레가, 코산 등 3개사의 고용 인력만 3만4000명인데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출신이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는 브로커를 통해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공장에 취직한다. 브로커들은 여권 발급, 취업 비자, 비밀취급인가, 건강검진, 항공료 등 명목으로 노동자들에게 소개비를 요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2000~5000달러, 네팔 800~2000달러, 미얀마 800~1200달러 정도다.

문제는 소개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벌이가 이어지면서 해당 비용까지 고스란히 노동자의 빚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월급으로 말레이시아 최저임금 수준인 287달러를 받는다. 수입을 늘리려고 초과근무를 하지만 이마저도 떼이기 일쑤다.

노동환경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작업장 기온은 섭씨 60도로 찜뽀이어서 보호장비도 거추장스럽다. 환기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소음은 공해 수준이다. 작업 과정에서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행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실태를 파악한 미국 관세청은 7월 탑글로브와 그 자회사가 만든 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금지시켰다. 탑글로브는 노동자들에게 소개비를 배상해주고, 숙소 상황도 개선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30.77%>

① 채권단 ‘1대 주주’ 금호산업 지분 감자 불가피

‘아시아나항공 노딜’이 남긴 4가지 쟁점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최종 무산된 가운데 향후 재매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단 관리하에서 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매각으로 그룹 정상화를 도모했던 금호그룹은 위기에 직면했고, 이에 채권단은 금호산업, 금호고속에 대한 관리도 예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실패로 이들이 매듭지어야 할 쟁점을 짚어봤다.

먼저 금호산업의 지분에 대한 감자 여부다. 감자는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으로, 주주에게 책임을 묻어 결손금을 보전할 때 사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부분자본 잠식 상태다. 이대로면 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1대 주주는 금호산업으로 30.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단은 경영진 책임을 묻어 이 지분에 대해 ‘완전감자’ 혹은 ‘100대 1’의 감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한 지분(11.02%)과 소액주주의 감자를 요구할 때는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② 이행보증금 법정 공방

매도인 선행조건 미충족 이유
현산, 2500억 반환 소송 유력

③ 구조조정 불가피

‘고용 90% 유지’ 기안기금 조건
6개월 후 대규모 인력 감축 예상

④ 기안기금 특혜 시비

아시아나, 코로나 이전부터 위기
기금 지원 쌍용차와 형평성 논란

감자를 요구하는 데, 박삼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관계를 고려하면 금호석유화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관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모든 주주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차등감자를 요구하겠지만, 이들 주주는 오히려 채권단도 ‘노딜’ 책임이 있다고 반박할 여지가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이행보증금 반



환 소송도 불거질 전망이다.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냈다. 이 돈은 계약상 기한 내에 최종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하지만 HDC현산은 지금까지 매도인 측이 선행조건을 미충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실제로 계약금이 반환된 사례가 있다. 2008년 당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자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우선 제출했다.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

면서 2009년 매각 절차가 중단됐다. 1심과 2심에선 한화가 졌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최종계약 전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된 탓이다. HDC현산은 이같은 한화 사례를 참고해 금호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측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도 중요한 쟁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채비율이 폭등한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게 되면

기존 고용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달린다. 당장 6개월 동안은 인력 구조조정이 소규모로 이뤄지겠지만, 이후에는 대규모 인력 감축도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기안기금은 계열사 지원을 금지하는 조건도 달고 있다. 통매각 대상이었던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HDT 등 자회사도 분리 매각도 검토 대상이다.

아시아나항공에 기안기금 지원으로 쌍용자동차와의 형평성 문제도 부각할 전망이다. 산은은 줄곧 유동성 위기를 겪는 쌍용차에 대해 기안기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안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대상인데, 쌍용차는 위기 이전부터 경영이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경영위기는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특혜성’ 지원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기금 심의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적자가 난 것은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좀비 기업’(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기업)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객신사 기자 jinsan@



손병환 농협은행장 ‘현장 행보’ 손병환(오른쪽) NH농협은행장이 11일 경기 양주시에서 NH농협은행 생산업체 카스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카스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 수하물 저울’을 공동 개발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바이러스 공기살균기 사업에도 진출했다. 사진제공 NH농협은행

금융당국, 신용대출 ‘핀셋 규제’ 만지작

5대 은행, 10일 만에 1.1兆 늘어
주담대 우회 제한 등 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은행권과의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신용대출이 코로나19와 불황 속에서 향후 가계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당국은 생계용 신용대출도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 등을 발라내 ‘핀셋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용도를 알 수 없는 깜깜이 대출도 많아 자칫 자영업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에 불똥이 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에는 5대 은행 부행장(여신 담당 그룹장급)과 화상 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급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0일에는 은행 대출 관련 차·과장급 실무자들과 회의도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기준 등의 자료를 은행들에 요청하고 신용대출 급증 동향 등을 파악하는 회의였다”고 전했다.

저금리 지속으로 최근 신용대출은 급증세다.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172억 원이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 당시 잔액(124조

2747억 원) 대비 8영업일 만에 1조1425억 원이나 더 불어났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폭(4조755억 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생계형 용도가 아닌 신용대출에 어떻게 핀셋형으로 규제를 가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부동산·주식 투자 자금 수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생활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는 가계도 있는 탓이다. 용도를 알 수 없는 신용대출이 많은 점도 고민을 더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증권 계좌 샘플, 규제지역 주택 매매의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우선 금융당국의 핀셋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우회 용도를 규제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속에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또 표류하는 키코 배상안...

은행 “불완전판매 증빙서류 없다”

금감원, 은행協 회의 열었지만
공대위 ‘상생기금 조성안’ 철회
구체적 배상안 내달 나올 듯

“불완전판매 증빙서류를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외환과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회의 입장이다.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로 제시한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해달라”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키코 공대위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은행협의회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들의 진척사항 등을 파악했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들은 “사안이 오래되다 보니, 불완전판매 증빙서류가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못해 논의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사실상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배상안을 확정짓기 힘들다는 얘기다. 금감원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기존 기한인 9월 말에서 내달로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연합회의 역할론도 다시 한 번 언급됐다. 은행 협의체는 은행연합회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고, 은행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말 이외의 답변은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은행연에 재차 요청을 하겠다고 회의에서 언급했다.

이 가운데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된 상생기금 조성은 논의를 이어나가지 않기로 했다. 키코 분쟁조정기업 측이 상생기금 제안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는 “키코 피해기업 단체에서 기금조성 관련 제안은

접했다고 전해와 그 부분(상생기금 조성)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생기금 조성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한 밖이라 금감원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키코 배상 마무리는 협의체의 자율배상으로만 좁혀지게 됐다.

금감원이 이날 ‘은행 협의체’를 소집하게 된 배경은 키코 자율배상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애초 키코 협의체는 출범 후 간사 은행을 선출, 은행 주도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출범 후 진척이 없었다. 보다못한 금감원이 은행들에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다만 입장을 선회한 은행들이 2~3군데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10월 안에는 어떻게든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9월 말 전후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종합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보험사 ‘사기 가담 설계사’ 내년부터 직접 퇴출

중징계 이력 공유 작업 착수

내년부터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소속 회사가 직접 보험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앞두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중징계 이력을 공유하는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로 소속 회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 정보를 보험협회에서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예고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는 보험사기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만 업계에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자체적으로 적발하고도 업계에서 퇴출하지 못하거나 퇴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는 대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진행되므로 회사가 보험사기를 인지하고부터 업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기까지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린다.

보험사가 포착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혐의 대부분은 보험금 환수와 자체 징계로 종결되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나머지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체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는 징계 사실을 모르는 다른 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으로 옮겨 보험설계사로 계속 일할 수 있어 다른 업체와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사기 피해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하지 않고 회사 징계만 받은 보험설계사라도 징계 수위가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이라면 그 징계 정보가 협회를 통해 업계에 공유된다.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보험사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업계에서 퇴출할 수 있고, 퇴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되는 것이다.

다만 업계는 ‘보험사기 설계사’ 정보 공유를 받기면서도 효과를 체감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지연 기자 sjy@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명확한 시장분석

예리한 종목 선정

적극적인 투자전략으로!

나의 투자,
비상(飛上)하다

하나금융투자과 함께하는 2020 재테크 비상(飛上) 프로젝트

하나고배당금융테크랩 V2

투자포인트 성장성 높은 기술주, 매력적인 고배당예상주 및
안정성 높은 금융주에 엄선 투자

추첨 EVENT

1천억원 돌파 시마다 가입손님 대상 추첨, 가전제품 등 증정 (10명 내외)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마케팅 동의 필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랩 수수료 • 선취형 : 선취 0.7%, 후취 연 1.0% • 기본형 : 후취 연 1.2%

[이벤트 유의사항] ※추첨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당사 부담 ※ 추첨 경품은 이벤트 종료 익월 영업점에서 수령가능 ※ 본 이벤트는 당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음(단, 기 조건 충족 고객 및 당첨고객 제외)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권 설명 청취 ※원금 손실 가능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랩이카운트는 고객 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 할 수 있음.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3756호(2020.08.12~2021.08.11) 준법감사인 심사필 제20-296호(2020.09.10~2021.08.11), CC브랜드 200911-0123

 **하나금융투자**
m.hanaw.com | 1588-3111

코로나에 막힌 기존 사업방식... ‘꿈의 직장’도 흔들

대기업 인력 구조조정 현황
※출처: 각사

항공	
이스타항공	정리하고 및 희망퇴직
대한항공	유무급 휴직
아시아나항공	유무급 휴직
조선중공업	
두산중공업	명예퇴직 및 휴직
대우조선해양	희망퇴직
현대로템	희망퇴직 및 임원감축
자동차	
르노삼성	희망퇴직 및 순환 휴직
타타대우상용차	희망퇴직
자일대우상용차	정리하고
현대기아차	임단협 난항
정유·화학	
에스오일	희망퇴직
㈜한화	전환배치 및 희망퇴직
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전환배치 및 희망퇴직

항공·조선·車·정유 등 전통 산업 위기에 ‘신산업’ 가속화 3년간 이자도 못버는 한계기업 작년 413곳...구조조정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 대기업에 더는 ‘구조조정 안전지대’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사업 방식이 통용되지 않는 사상 최악의 경영환경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항공업이 대표적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정리하고 대상자 605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했고, 지난달에는 희망퇴직을 통해 98명이 회사를 떠났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은 인력 구조조정 없이 순환 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유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항공업 종사자의 65%가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업도 심각한 상황이다. 두산중공업

은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시행해 약 900명이 퇴사했다. 또, 5월부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50여 명의 직원이 휴직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현대로템도 기존 38개 실을 28개로 축소하는 조직 통폐합을 하면서 책임매니저 이상 관리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임원 수도 기존 대비 20% 줄었다.

자동차 및 부품 업계에서도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7월 약 400명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이후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면서 순환 휴직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르노 본사가 글로벌 공장 6곳에서 1만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져있는 상황이다.

타타대우상용차는 이달 말까지 근속연수 1년 미만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대상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자일대우상용차(대우버스)는 직원 447명 중 85%에 달하는 377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생산직은 단 4명만 남았다. 만도 또한 3월 전체 생산직의 10%에 해당하는 약 200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희망퇴직 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전기·수소차 시장의 개화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고용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장 신설,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른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한 탓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전기차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생산할 경우 인력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현대차 노조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국내에 신설하거나 기존 생산시설 중에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아차 노조 역시 현대모비스의 친환경차 부품 공장 신설에 따라 인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공장 신설에 반발했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에스오일(S-OIL)에서도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

한화도 전 세계 교역 부진으로 무역사업을 재편,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전자업계에선 디스플레이 회사들의 희망퇴직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지만, 사업 재편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희망퇴직과 타 사업부·계열사로의 전환 배치에 나섰다.

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과 제조업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고조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하는 ‘한계기업’에 속하는 대기업은 413개로 전년 대비 21.1% 급증했는데, 이 대기업들의 종업원 수는 2018년 11만 4000명에서 작년 14만7000명으로 29.4% 늘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영대 기자 yeongdai@

유창욱 기자 woogi@

노우리 기자 we1228@

현대차 정의선 체제 2년, 수입차 제치고 모빌리티 혁신 가속

제네시스 국내 고급차 시장 1위 내년 EV 전용 플랫폼 출격 대기 인천선 ‘스마트’ 버스·택시 운영 AI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정의선(사진) 수석부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끈 지 2년이 됐다. 짧은 리더십을 앞세워 현대차는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로 바뀌고 있다.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 성공으로 수입차를 제친 건 고무적인 성과다.

13일 차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2018년 9월 14일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공식 ‘2인자’에 올랐다. 지난해 3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고 올해 3월 현대차 이사회 의장에 오르며 정 부회



장의 입지는 확고해졌다.

이 기간 현대차는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수입차를 제치며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 제네시스의 올

1~7월 기준 판매량(6만5대)은 수입차 대표주자인 메르세데스-벤츠(4만1583대), BMW(2만9246대)를 훌쩍 앞섰다.

2015년 탄생한 제네시스는 이듬해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반짝 1위를 차지한 후 수입차 인기에 밀려 2~3위권에 머물렀다.

제네시스 판매가 날개를 단 것은 신차가 줄줄이 대박 행진을 터뜨린 덕분이다. 연초 선보인 제네시스 첫 SUV(스포츠윌리티차량) GV80에 이어 7년 만에 선보인 준대형 세단 3세대 G80까지 인기몰이 중

이다. 디자인과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며 수입차 못지않은 고급 브랜드 입지를 다진 영향이 크다.

최근엔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을 둔 전기차를 ‘아이오닉’ 브랜드로 출시한다. 일정을 앞당겨 현대차와 제네시스에서만 2년간 전기차 9종을 새로 낸다. 2025년엔 100만대를 판매해 세계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소 분야 리더십 유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넥쏘 다음 모델을 개발하고 수소 전기 트럭 양산체제를 갖춰 유럽으로 2025년까지 1600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는 이날 인천시와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수요 응답형 버스 20대와 전동 킥보드 300대, 단

거리 합승 택시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운영된다.

현대차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경험을 향후 국내외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의선 부회장은 “미래에는 자동차가 50%가 되고 30%는 개인비행체(PAV), 20%는 로봇틱스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 안에서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이라고 첨단 모빌리티 솔루션 업체의 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제네시스 브랜드로 고급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고 전기차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도심 항공모빌리티(UAM) 사업도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송영록 기자 syr@



1mm보다 작아진 삼성 파워인덕터

스마트폰·전기차 필수 부품

삼성전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파워인덕터(사진)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파워인덕터는 배터리에서 오는 전력(파워)을 반도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이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등에 필수로 사용된다.

이번에 개발한 파워인덕터는 0804크기(가로 0.8mm, 세로 0.4mm)로 기존 모바일용 제품 중 가장 작았던 1210크기(가로 1.2mm, 세로 1.0mm) 대비 면적을 대폭 줄이면서 두께는 0.65mm에 불과하다. 삼성전기는 이 제품을 글로벌 모바일 회사로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IT기기는 점차 경박단소(輕薄短小)화 되면서 5G(5세대 이동통신), 멀티카메라 등 다기능·고성능화로 탑재되는 부품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제품 내부 공간이 줄어들어 초소형 부품이 요구된다. 또 부품의 스펙이 좋아지면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늘어나 높은 전류를 견딜 수 있는 파워인덕터가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MLCC(적층세라믹콘덴서)로 축적한 재료기술과 반도체용 기반 제조공법을 적용해 크기는 절반 이상 줄이고 전력손실을 개선했다.

삼성전기는 초미립 파우더가 적용된 원자재를 독자 개발했으며,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감광공법(빛을 이용해 회로를 새기는 제조법)을 적용해 코일을 미세한 간격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송영록 기자 syr@

삼성물산, 6000억 규모 우즈베크 태양광 수주 나선다

한전과 자문사 선정 절차

“부대 사업까지 1조 이상”

삼성물산이 최소 6000억 원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종합상사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한국전력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최근 발주한 태양광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법률·기술 등 자문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과 한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셰라바드(Sherabad) 프로젝트와 사마르칸트(Samarkand) 프로젝트, 지작(JizzakH) 프로젝트 등 총 3가지다. 각각 200메가와트시(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총 규모는 600MW에 달한다.

특히 셰라바드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남부 수르한다리야(Surkhandarya) 지역에서 개발되는 첫 번째 주요 전력 프로젝트다. 그런 맥락에서 우즈베키스탄 정

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핵심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프로젝트들은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입찰을 마칠 예정이다. 사업비는 최소 6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600MW 규모의 사업이면 최소 6000억 원 수준”이라며 “부대사업까지 고려하면 1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전력 공급의 2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의 전반은 삼성물산이 주관하고 발

단단지 건설과 운영 및 송전은 한전이 맡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풍력·태양광 단지에서도 삼성물산이 사업을 주관하고 한전은 발전단지 건설과 운영, 송전을 맡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에너지 2030 정책에 관해 관심 있게 검토하고는 있다”면서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현재 삼성물산 상사 부문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LG ‘신소재 개발’ 글로벌 AI 연합 결성

캐나다·프랑스 산학 컨소시엄

친환경 촉매·광학 소재 연구

LG그룹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촉매·차세대 소재 등 화학소재를 개발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 및 학계와 공동연구에 나선다.

LG사이언스파크는 지난 11일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와 맥마스터대학교, 프랑스 에너지·석유회사 토탈(Total)과 함께 ‘AI 기반 소재 개발 컨소시엄(The Alliance for AI-Accelerated Materials Discovery·A3MD)’을 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A3MD는 AI를 활용한 소재 개발 분야

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학계와 산업계 파트너가 함께 참여하는 세계 최초 AI 연합이다. LG는 창립 멤버로 참여해 신소재 개발을 위한 AI 선행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재 분야 AI 석학 등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 컨소시엄은 ‘친환경 촉매’와 ‘차세대 광학 소재’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AI 모델링 및 자동화 실험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보통 석유화학 공정에서 뽑아내는 에틸렌과 같은 화합물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로부터도 생산할 수 있는

데, 이때 화학반응을 유도하는 촉매를 머신러닝과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설계하는 것이다. AI 기술을 소재 개발에 적용하면 소재 물성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반복 실험을 거쳐야 하는 기존 연구방법보다 개발 비용이나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결국, 고객사별 맞춤형 소재를 더 빠르게 제공하게 된다.

한편, LG사이언스파크는 AI 분야의 선두 주자인 토론토대학교를 비롯한 글로벌 우수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송영록 기자 syr@

“코로나 재확산에 매출 반토막”… 휴대폰 판매점 ‘한숨’



휴대폰 판매점이 모여 있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지난달 말부터 매장 휴대폰 판매 매출이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13일 서울 신도림역 인근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 A 씨는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책 이후 매장 판매가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평소 오프라인 방문이 많은 신도림역 주변 대리점이나 판매점들도 큰 폭의 매출 감소를 피해갈 수 없었다.

A 씨는 “대부분의 고객이 유심변경이나 서비스 변경 등 이른 시간에 끝나는 업무를 위주로 방문한다”라며 “예전처럼 매장에서 핸드폰을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보려는 고객들이 거의 없다”라고 매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휴대폰 매장들

“그나마 손님도 휴대폰 구매보다 단순 서비스 위해 방문”
이통사, 픽업서비스 등 비대면 영업채널 강화 ‘상생전략’
직영점 등 일부 매장만 혜택… 일반 판매점은 고사 위기

직접 방문해 개통하려는 움직임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통사들은 비대면 영업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절차를 간소화해 매장 방문을 꺼려 휴대폰 구매를 미루는 고객들까지 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와 대리점을 연결해 매출이 하락한 매장을 보호하는 정책도 진행 중이다.

예컨대 SK텔레콤의 ‘바로픽업’과 ‘바로도착’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매출과 수수료는 고객이 지정한 매장(바로

픽업)이나 배송을 해준 매장(바로도착)으로 귀속된다.

KT는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1분 주문’과 ‘1시간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과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단말기를 개통한 후 배송하는 방식으로 접촉도 줄이고, 해당 매장으로 매출로 인정한다.

LG유플러스도 고객이 유심에서 휴대폰을 사면 당일엔 전문 상담사가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주문 당일 가까운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

후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자니 오프라인 매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판매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통사의 상생 전략은 통신사별 직영점이나 대리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 판매점은 사정이 다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판매점(집단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이달 초부터 판매량이 반으로 줄었다”라며 “위낙 확산 세가 컸기 때문에 단골들에게도 코로나19가 주춤할 때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급한 손님은 다른 손님과 겹치지 않게 시간을 조정해 예약 상담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최소화해 버티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매장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표준과 국내 벤처·스타트업계 동향을 반영한 계약서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캐피탈협회와 함께 마련하고 있는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연내 발표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일반화된 미국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국내 법령 등을 포함한 내용이 담기며,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8월부터 벤처투자촉진법(벤처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투자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고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에서 표준화된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검증과정이 필요하고 업계 의견도 들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지만 연내 발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벤처·스타트업 투자 과정에서 사용되는 표준 양식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엔젤투자 단계부터 프리A시리즈 등 초기 투자 단계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양식이 정해져 있는 만큼 기업 가치를 판단하

벤처법 등 바뀐 내용 추가
글로벌 표준 내용도 반영
“비용 절감·의사결정 단축”
업계 의견 반영 연내 완료

기 쉽고 투자 효율성도 높다. 의사결정 시간과 법무비용 등을 단축할 수 있어서다.

국내의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아 계약서를 투자 단계와 기업에 따라 새로 꾸려야 한단 문제가 있었다. 특히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법률 검토에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계약서 작성에 3~4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았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에 공감한 모양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2월 한국벤처투자 업무보고를 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 2018년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계약서 해설서 및 핸드북’을 통해 투자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일종의 벤처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벤처캐피탈(VC)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함께 만든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Start Docs)도 있다. 해당 계약서는 2015년 처음으로 배포됐고 지난해 개정판이 새로 작성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에는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도 ‘스타트업 계약서 키트(kit) 5종’을 발간, 투자에 필요한 계약서와 해설서를 각각 공유했다.

법무법인 세움 관계자는 “당초 스타트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VC업계와 스타트업계는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스타트업계와 유관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VC업계 관계자는 “벤처법 등 관련된 법령을 포함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긴 했다”면서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업계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계약서 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U+tv로 스마트 홈트하세요”

LG유플러스는 카카오프렌즈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홈트레이닝 전문 서비스 ‘스마트홈트’를 IPTV 플랫폼 ‘U+tv’에서 15일 신규 출시한다. U+tv용 스마트홈트 출시에 따라 LG유플러스 IPTV 고객은 맨손 근력운동과 스트레칭, 필라테스, 요가, 골프, 복싱, 댄스, 성장체조, 다이어트 등 유명 강사가 알려주는 40여 개의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대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U+tv용 스마트홈트는 UHD2, UHD3 셋톱박스에서 지원하며, 지원 모델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IPO 홈런 친 카카오게임즈 신작 게임도 돌풍 일으킬까

‘엘리온’ 흥행 미지수… “자체 IP 확보 경쟁력 키워야”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이틀 만에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는 지난 11일 종가 기준 8만1100원을 기록했다. 이는 공모가 2만4000원 대비 238% 상승한 수치다. 상장 첫날 ‘파상’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가격제한폭(29.97%)까지 올라 일명 ‘파파상’을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은 5조9369억 원으로 셀트리온과 씨젠이 에어시중순위 3위까지 단숨에 올라섰다.

이처럼 상장 초반부터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고평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은 5조9369억 원에 달한다. 주가수익 비율(PER)은 무려 411배 수준이다. 넷마블의 PER이 75.92배, 엔씨소프트의 PER이 34.45배 수준에 그친다.

특히 게임 신작은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뚜껑은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험요소가 남아있다. 현재 카카오게임즈의 PC온라인 주력 라인업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패스 오브 엑자일’, 북미 유럽 시장에 ‘검은사막’ 등이다. 모바일

게임은 ‘프렌즈타운’과 ‘프렌즈팝콘’,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리:다이브)’, ‘달빛조각사’, ‘가디언 테일즈’ 등이 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가디언테일즈가 18위에 올라있을 뿐 큰 흥행은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신규 PC온라인 게임 ‘엘리온’의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흥행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카카오게임즈의 라인업이 다양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약점이라고 지적한다. 게임업계 상위권에 속하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은 다양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신작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각각의 자체적인 IP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카카오게임즈는 아직 강력한 자체 IP가 없어 경쟁에서 힘이 약하다는 평가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강력한 독자적인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며 “IP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있으므로 균형 있게 보면서 다년간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SK바이오팜이 이슈를 몰고 오며 상한가를 기록하다 떨어진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조성준 기자 tatio@

삼성SDS, 협업·자동화 솔루션 ‘브리티웍스’ 사업 확대

메일·결재·일정·게시판 등 업무에 필요한 기능 통합제공

삼성SDS가 클라우드 기반 기업용 협업 및 자동화 솔루션 브리티웍스(Brity Works)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13일 삼성SDS에 따르면 브리티웍스는 전 세계 50만 삼성 임직원들이 사내의 협업과 업무 자동화에 사용 중인 솔루션을 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다. 실시간 협업을 위한 메일·메신저·영상회의와 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Assistant(대화형 AI 챗봇) 등 5가지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한 번만 로그인하면 되는 통합인증(SSO: Single Sign On)으로 ERP·SCM·MES·CRM 등 핵심 경영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표준 API가 갖춰져 있다.

브리티 메일은 메일, 결재, 일정, 게시 등 일상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업무 포털이다. 국내외 삼성 임직원들이 사용하면서 발전시킨 다양한 편의기능을 담았다. 브리티 메신저는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음성통화, 화면 공유가 가능한 기업용 메신저로, 다양한 사내 시스템과 연계하여 메시지 창에서 실시간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브리티 RPA는 반복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능에 챗봇, 딥러닝 기반 이미지 인식(AICR), 텍스트 분석 등 AI 기술을 적용해 판단, 심사, 평가 등 복합업무 자동화까지 가능하게 해 준다. 지난 7월 오픈한 RPA·챗봇에 이어 이달 22일부터는 메일·메신저·미팅도 홈페이지(My Trial)에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삼성SDS 임수현 솔루션사업부장(부장)은 “브리티웍스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현을 통해 기업의 미래형 업무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中 중추절·추캉스 특수 실종... 면세점 ‘우울한 3분기’

中, 국내 면세점 한도 높여
보따리상 모셔오기도 부담
 시내 면세점 휴무일 늘리고
재고 물량 내수 판매에 주력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늘길이 끊기며 최악의 상반기를 보낸 면세업계는 3분기에 도 먹구름이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 면세업계에서는 중국 중추절 연휴와 추석 연휴 국내 여행객의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3분기가 성수기로 꼽혀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추절과 추캉스 여행 특수를 기대할 수 없게 돼 매출부진에 허덕이는 업계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들은 휴무일을 늘리는 등 자구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부산점은 그간 매주 월요일 주 1회였던 휴무일을 이달부터 일·월요일 주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영업 정상화 시점까지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미 5월 말부터 시내면세점인 강남점과 부산점을 일·월요일 주 2회 휴점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 안전을 위해 영업점 운영 시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인 매장의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휴무일

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추절 영업 대상인 개인 보따리상(파이공)의 한국 입국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형 보따리상에 비해 취급 물량이 적은 개인 보따리상은 한국에 들어오려면 왕복 4주 자가격리를 거쳐야 해 유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여행길이 막힌 이 상 이들에 매출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별자유관광객(FIT)과 단체 손님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매월 수십억원어치를 사가는 ‘기업형 파이공’을 모셔오기 위한 비용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건 판매 단계부터 할인을 제공하거나 매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없으면 파이공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내국 면세점 한도를 확대한 조치도 국내 업계엔 악재다. 중국이 7월부터 하이난 방문 내국인 1인당 연간 면세소핑 한도를 3배로 늘림에 따라 한국 면세점을 찾던 중국 보따리상들이 하이난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재입찰 일정 변경도 업계의 ‘우울한 3분기’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제1터미널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신청 기간을 9월 7~14일에서 14~21일로 변경했다. 입찰 결과에 따라 최대 10년의 사업이 보장되는 만큼 빅3는 물

론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입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앞서 2월처럼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 공항공사 측에서 일정을 연기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해법을 찾지 못한 면세업계는 우선 내수통관 상품 판매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롯데면세점과 롯데온은 11일 역대 최대 물량으로 내수통관 상품을 선보였다. 롯데면세점은 롯데온에서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마음방역명품세일’ 5차 판매를 진행 중이다. 보테가베네타, 에르메네젤로 제나, 에트로, 토즈 등 총 66개 브랜드 1800여 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신세계면세점이 7월 선보인 내수판매 전용물 쓱스페셜(SSG SPECIAL)은 최근 스타 스타일리스트 서수경을 쇼핑 도우미로 섭외했다. 소녀시대, 마마무, 박신혜 등 톱스타 스타일링으로 유명한 서수경 스타일리스트가 쓱스페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영상 콘텐츠로 직접 설명한다.

한편, 면세업계는 협회를 통해 관세청에 면세품 재고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면세점 지원책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세청은 4월 면세업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에 대한 내수통관 판매와 제 3자 반출 등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는 다음 달 29일 종료로 예정돼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교촌에프앤비, 연내 코스피 간다

가맹점·본부 동반성장 발판
3년간 준비 상장심사 통과
입성땀 프랜차이즈 최초

교촌에프앤비의 연내 코스피 상장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위원회 심의에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교촌에프앤비가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경우, 프랜차이즈점 1호 코스피 직장 기업인 된다든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의 상장으로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직상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증시에 입성한 프랜차이즈 기업은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 우회상장을 통해 뒷본 진출을 한데다 상장 후 횡령·배임, 갑질 등 구설이 끊이지 않았다.

교촌에프앤비의 예비심사 통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소진세의 목소리’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롯데맨에서 교촌에프앤비의 전문경영인으로 자리를 옮긴 소진세 회장은 취임 초부터 상장에 공을 들여왔다.

교촌은 2018년 3월 상장 추진을 발표한 뒤, 3년 동안 차근차근 상장 준비를 해왔다. 소 회장은 취임 후 기존 프랜차이즈의 주먹구구식 경영방식을 시스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동반성장하는 점도 교촌이 예비심사를 통과한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본부의 매출은 오르지만, 가맹점 매출 성장은 지지부진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상당수가 무분별한 출점으로 본부 이익을 추구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점당 매출이 감소하고 가맹점 수가 급

감하는 악순환이 이어진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 상장이 없었다”며 “교촌이 대기업 출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 가맹점을 관리한 결과 경쟁브랜드보다 점주 매출이 높은 점도 이번 예비심사 통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촌치킨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3801억 원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발표한 ‘가맹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연 매출(2018년 기준)은 교촌치킨이 6억 1827만 원으로 1위였다. 이는 경쟁 브랜드들의 가맹점 매출에 비해 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교촌 관계자는 “매출 규모로 보나 시가총액 규모로 보나 다른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과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면서 “창립주가 프랜차이즈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공개로 통한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코스닥 아닌 코스피 직행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프랜차이즈들은 논란의 중심에 서며 우회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하는데 일조했다. 우회상장은 이미 상장된 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이라 직장장보다 상장요건이 비교적 느슨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프랜차이즈업계는 교촌의 상장 이후에도 주목하고 있다. 교촌이 코스피에 성공적으로 입성하면 후발 프랜차이즈들의 추가 상장도 기대해볼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두 번째로 3000호 점을 넘어선 이디야커피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등을 차기 상장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혜지 기자 heyji@



현대백, 플라스틱 없는 추석 ‘올 페이퍼 패키징’

현대백화점은 올 추서에 선물세트 포장재를 모두 종이로 바꾼 ‘올 페이퍼 패키징’ 과일 선물 세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추석 선물세트 판매 기간과 일 선물세트 총 80여 개 품목에 기존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고정틀과 완충 패드를 종이 소재로 교체하고, 3개 품목에는 스크래치 방지를 위해 추가로 종이 소재의 ‘완충 받침’도 적용한다. 산물내용 친환경 사과 세트(15만 원, 사과 11개), 산물내용 친환경 사과·배 세트(17만 원, 사과 8개, 배 3개), 산물내용 친환경 사과·배·멜론 세트(17만 원, 사과 4개, 배 3개, 머스크멜론 1개)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 “푸짐한 정식이 최고”

2.5단계 후 도시락 매출 26%↑
평균 중량보다 높은 제품 인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본격 발효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도시락 매출이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식이나 식당 방문을 꺼리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려는 문화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편의점 도시락을 정식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양이 많고 풍성한 도시락이 잘 팔리고 있다. 8월 이후 세븐일레븐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도시락 상위 5개 상품을 보면 평균 중량은 460g, 판매가는



4520원이었다. 가장 매출이 높은 도시락은 ‘11찬도시락’으로 중량이 510g이다.

이는 세븐일레븐에서 판매하는 전체 도시락의 평균 중량(436g)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중량의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을 입증한다. 일반식당에서 판매하는 비빔밥이나 덮밥, 찌개류의 1회 제공량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제로 8월 31일~9월 11일 상대적으로 중량이 많은 세븐일레븐 도시락 상위 5개 상품의 전년대 매출 신장률은 40.6%로 전체 신장률(25.8%)을 상회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롯데마트, 좋아하는 맛 골라 ‘DIY 와인 세트’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홈술족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롯데마트에서는 7~8월 와인과 위스키가 각 64%, 46%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롯데마트는 소비자 중심 구매를 가능케하는 와인·위스키 선물세트를 기획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와인을 선택해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DIY 와인 세트’를 선보인다.

그간 명절 기간 주력 와인 선물세트의 경우 구성품까지 결정된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매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트렌드로 바뀌면서 받는 이의 취향을 고려해 국가와 품종,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롯데마트는 내부를 금속 장식으로 꾸미는 등 고급스러움을 표현한 와인 선물 케이스 2종을 제작해 와인 가격에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와인 쇼핑 매장을 구현하고자 ‘비비노’ 어플리케이션 상의



고 평점 와인세트를 새롭게 입점해 선물세트화했다.

롯데마트는 7월 전 세계 1등 와인앱인 비비노(VIVINO)사와 브랜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비비노 앱은 고객이 직접 촬영한 와인 이미지나 앱 검색을 통해 원하는 와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와인 애호가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프랑스 샴페인 ‘로랑페리에 로제’, 이태리 인기 와이너리 카를로 사니사의 ‘네로 디 크로이아’ 등 고품점 상품을 새롭게 입점해 선물세트로 선보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본격 회복세 기대했지만… 3분기 ‘어닝쇼크’ 그림자

상장사 229곳, 3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37조4194억
한 달 전보다 0.12% ↑ …삼성전자 빼면 1.21% 감소
‘호텔·레저’ ‘가스’ 적자 확대… ‘항공운수’도 적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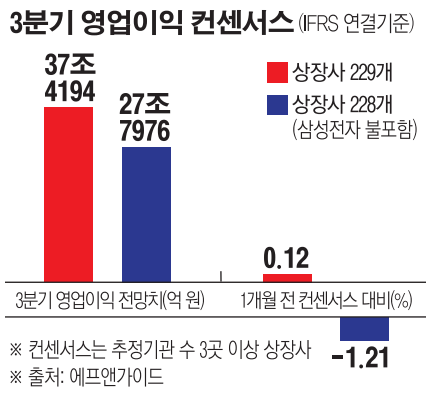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던 지난 7월 20일, 강원랜드는 카지노 일반영업장 문을 활짝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2월 23일 영업을 중단한 지 148일 만이었다. 그러나 영업 재개는 겨우 한 달간 이어졌다.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다시 거세게 번지더니 같은 달 20일 직원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된 것이다. 강원랜드는 방역을 마치고 이틀날 문을 열었지만, 정부는 바로 다음날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부터 지금까지 카지노의 문은 굳게 닫힌 상태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회복을 기대한 상장사들의 이익을 잠먹고 있다. 전염병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2분기를 지

나 3분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시장은 기대했으나 최근 눈높이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증권사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반영한 실적 추정치를 내놓는 데 소극적이어서 실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3곳 이상 추정)는 348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불과 한 달 전 추정으로는 337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는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에프엔가이드에 컨센서스가 집계되는 229개 상장사 중 한 달 전 컨센서스보다 3



분기 적자 예상폭이 커지는 기업은 CJCGV(-512억 원), 파라다이스(-253억 원), GKL(-210억 원), 삼성중공업(-603억 원), 하나투어(-323억 원), 제주항공(-676억 원), 한국가스공사(-1700억 원) 등 7곳이다.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4곳)보다 3곳이 더 많다.

전체 229개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7조4194억 원으로 한 달 전 예측보다 0.12% 늘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대장주’ 삼성전

자를 제외한다면, 228개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7조7976억 원으로 한 달 전 추정보다 1.21% 줄어들게 된다. 삼성전자는 잇단 수주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 수혜 기대감 등으로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달 전 예측보다 2.9% 증가한 9조28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에프엔가이드가 분류한 업종별로 보면 ‘호텔 및 레저’와 ‘가스’ 업종은 한 달 전 예측보다 3분기 영업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공운수’는 한 달 전까지 3분기 흑자가 예상됐으나 현재는 적자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통신장비(-45.1%), 백화점(-34.0%), 미디어(-18.3%), 반도체 및 관련장비(-12.1%), 섬유 및 의복(-10.0%), 조선(-9.0%) 등 업종이 한 달 전 예측보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크게 줄었다.

통신장비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5G 투자 지연으로 3분기 실적 가시성이 악화된 상태다. 백화점은 코로나19

로 인해 오프라인 구매 수요가 줄어드는 직격탄을 맞았고, 최근 미디어 업종은 영화관 수익 부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제작 지연 등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여파를 3분기 기업 이익 전망에 늦게 반영하고 있어서 현실이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간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한 8월 1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증권사는 목표주가를 제시한 기업분석 보고서 1436개를 생산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 이후이기 때문에 직전 한 달(2474개) 대비 한참 못 미치는 기업 실적 추정이 이뤄진 셈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익 정상화는 모두의 기대였지만, 그 기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실적 전망치는 3분기, 4분기 어닝쇼크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추가 할인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코로나發 배당컷 현실화…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

2분기 상장사 현금 배당액 2.9兆… 지난해 대비 21% 감소
코로나 장기화 따른 현금흐름 악화에 16곳 올해 배당 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상장기업 경영환경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상반기 대규모 배당컷이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하반기 배당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체 상장사(12월 결산사 기준)의 반기 누적 배당금은 5조552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반기 누적 배당금인 6조4592억 원과 비교하면 14%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적 직격탄을 맞은 2분기에 배당금이 크게 줄었다. 올해 2분기 상장사의 현금 배당액은 2조9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3조7128억 원 대비 21% 넘게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배당을 시행한 기업 중 16개는 올해 배당을 아예 포기했다. 대표적

배당주로 꼽히는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2분기 2630억 원의 배당을 시행했지만, 올해는 ‘0원’으로 배당 규모를 줄였다. 이어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등도 배당금을 전액 삭감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1분기 기준으로는 배당금 격차가 크지 않았다. 올해 1분기 2조6315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4% 감소하는 데 그쳤다.

분기마다 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전체 상장사의 ‘배당컷’ 격차는 더욱 커진다. 올해 2분기 전체 상장사 배당 규모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86%에 달한다.

올해 2분기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체 상장사의 누적 배당금은 743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 급감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에도 배당 규모를 늘

리거나 새롭게 실시한 상장사도 있다. S&T홀딩스는 지난해 2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37억 원 규모의 배당을 진행했다. S&T모티브도 96억 원의 배당을 지급했다. 이어 케어젠(96억 원), 웅진씽크빅(46억 원), 이원화학(20억 원), 제이에스코퍼레이션(19억 원), 갤럭시아컴즈(8억 원) 등이 올해 2분기 새롭게 배당을 책정했다.

상반기 기업들의 현금흐름 악화에 따른 배당삭감이 현실화했지만,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최근 하반기 실적 상향 종목이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배당회복 기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와 저평가주의 강세가 나타나곤 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복원, 이익 회복 기대로 배당주가 재평가될 수 있지만,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는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아 기자 ljh@

‘카뱅’ IPO 채비… 흥행 이어갈까

카카오계열사 상장 2호 유력… 주관사 선정 RFP 발송

카카오게임즈가 역대급 기업공개(IPO) 흥행을 기록하면서 카카오의 2호 상장사로 주목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주관사 선정을 위해 증권사들에게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IPO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선 상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코스닥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날 ‘파장’ (공모가 2배에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에 이어 다음날에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2만4000원이던 공모가가 8만1100원까지 치솟았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237.92%에 달하며, 시가총액도 5조900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단숨에 코스닥 시총 순위 3위까지 상승했다.

이처럼 카카오게임즈가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하면서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행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단계며, 아직 상장 주관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카카오계열사 상장 2호로 유력한만큼 이미 장외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인기는 뜨겁다. 현재 장

외시장에서 카카오뱅크의 1주 당 가격은 12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시가 총액은 40조 원을 넘어서며 4대 금융지주 시총을 합한것과 비슷한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실적도 기대감을 뒷받침한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9% 급증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를 약 9조 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기업가치가 8조9000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영업 시작 2년 만에 흑자 구조를 만들었고 비약적으로 외형이 성장해 세계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성공 사례로 꼽힐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에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면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분 4.93%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 지분 1.97%를 가진 예스24는 이달들어 11일까지 주가가 각각 28.74%, 45.56% 올랐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BBIG’ 담은 민간 뉴딜펀드 잇따라 출격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삼성엑티브 ‘뉴딜코리아펀드’ 미래에셋 ‘K뉴딜 ETF’ 등… “중장기 전망 밝음”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민간 뉴딜펀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어 흥행 여부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4일 삼성엑티브자산운용이 ‘삼성뉴딜코리아펀드’, 내달 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KRX BBIG K뉴딜 상장지수펀드(ETF)’ (가칭)를 각각 출시한다.

또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도 뉴딜 ETF 등 출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미래에셋운용의 BBIG K뉴딜 ETF는 한국거래소(KRX)가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KRX BBIG K뉴딜지수’에 기반한 첫 금융상품이다.

이 지수는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업종의 12개 주요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이 지수의 최초 개발 아이디어를 거래소에 제공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수를 향후 3개월간 독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막 시작된 뉴딜펀드·ETF 시장을 선점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삼성뉴딜코리아펀드는 친환경 에너지 등 그린뉴딜, 정보기술(IT) 등 디지털뉴딜 관련주에 주로 투자하는 액티브 주식형 공모펀드다.

삼성엑티브운용 모기업인 삼성운용도 BBIG 업종에 투자하는 ‘에프엔가이드 K뉴딜지수 ETF’ (가칭)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 ETF는 삼성운용이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와 공동 개발한 지수를 기반으로 BBIG 4개 업종별 5개씩 총 20개 종목

을 편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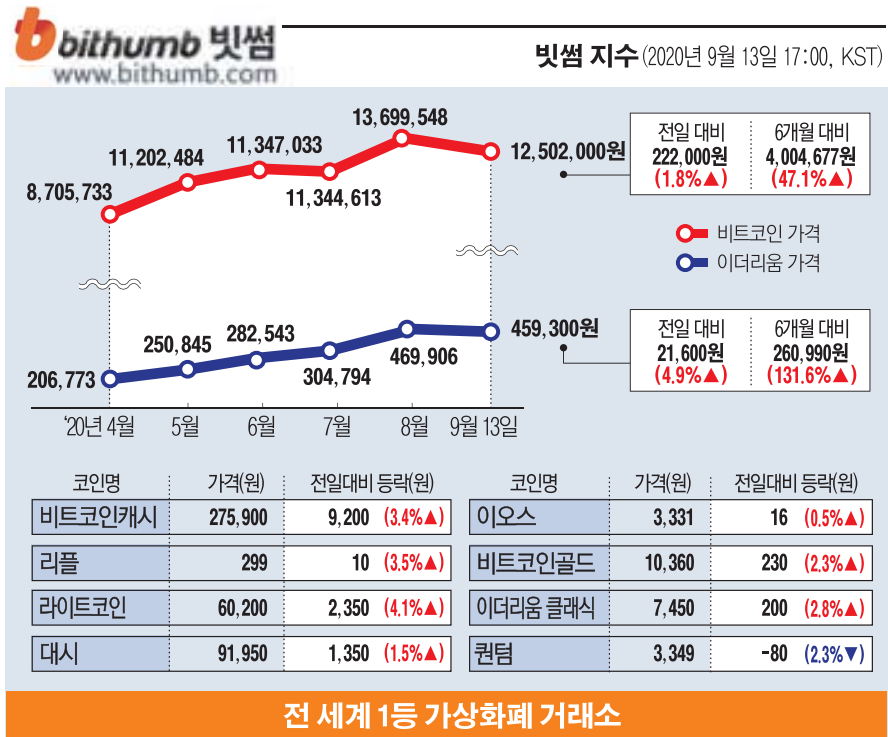
앞서 7일 NH-아문디자산운용이 내놓은 ‘NH-아문디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펀드’도 사실상 민간 뉴딜펀드로 꼽힌다.

이 펀드는 전기차·헬스케어 등 성장성과 실적 개선 추세가 뚜렷한 그린뉴딜 등 친환경 테마에 집중 투자한다.

이처럼 다양한 뉴딜펀드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핵심 투자대상인 BBIG 주요 종목 대다수가 이미 많이 오른 대형주여서 신규 수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KRX BBIG K-뉴딜지수 소속 12개 종목의 경우 11일 종가기준으로 이미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1~10위 중 6개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LH ‘준공업지역 개발’ 시동…서울 서남권 기대감 ‘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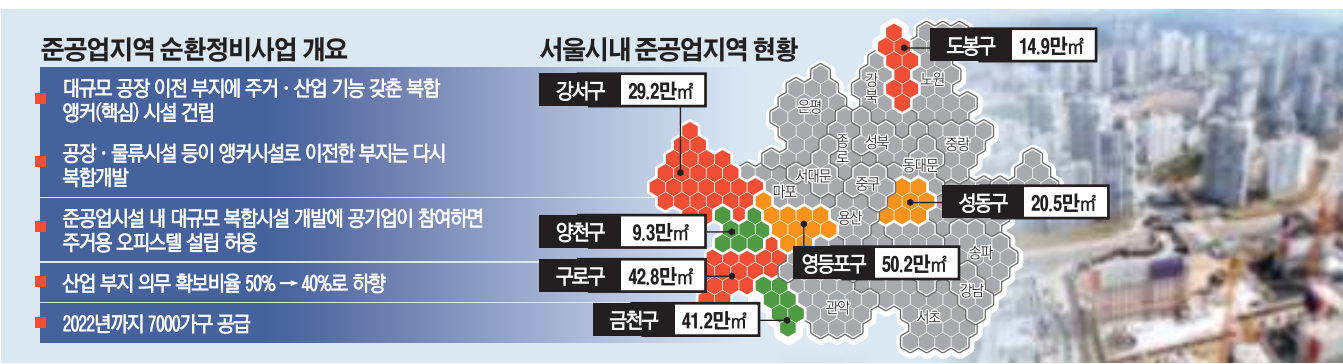
영등포구 20% 50만㎡가 준공업지역
구로·금천 등 소규모 경공업체 밀집
교통 편리하고 용적률 등 규제 느슨
공장 이전 시범사업지 선정이 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준공업
지역 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준공업지
역이 몰린 서남권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 초 영등
포구 준공업지역과 경인로 일대를 공공재
개발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LH 주도로
노후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고, 이 가운
데 일부에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영등포구는 서울에서 준공업 지역이 가
장 넓은 자치구다. 구 면적의 20%(50만
㎡)가 준공업지역이다. 특히 경인로 북측
문래동 준공업지역엔 소규모 경공업 업체
가 밀집해 있다.

영등포 준공업지역 공공재개발은 박원
순 전(前) 서울시장이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변창흠 LH 사장이 박 전 시장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프로젝트가 궤
도에 올랐다. LH 관계자는 “아직은 아이



디어 차원”이라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
다.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업계에선 LH가 영
등포 준공업지역을 공공재개발한다면 서
울시 공조를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사업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H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서울 준공업
지역은 영등포 일대 뿐만이 아니다. LH는
이달 금천구 가산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을
대상으로 ‘서울 준공업지역 내 신사업 후
보지 발굴 및 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준공업
지역 복합개발과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용역 목적이다.

LH는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산업

단지 재생사업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
되 준공업지역 토지를 매입해 직접 개발에
뛰어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 측
은 “이 지역은 오랫동안 공장지대로 개발
돼서 다른 지역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용
역을 통해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LH가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만
지작거리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무관치 않
다. 정부는 지난해 LH와 서울주택도시공
사(SH) 등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에 주택 공급
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주거·산업 기능
을 함께 갖춘 앵커(핵심)시설을 공급하고
용도·넓이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공장
이 앵커시설로 옮겨간 유휴 부지엔 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현재 서울시에선 1998만 ㎡가 준공업지
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인로와 경부선을
따라 영등포구와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서남부에 집중돼 있다.

주택시장에선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가 완화되면 개발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산업화 시대 도심 가까이 지어진 준공업지
역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고 용적률·건
폐율 규제도 주거지역보다 느슨하기 때문
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올해 안에 준
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환정비사업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는 목표를 세웠다. 관건은 선정 기준이다.
국토부는 연면적 3000㎡가 넘는 대규모

공장 이전 부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려
한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1만 ㎡로 올리
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 지역으로 인정받으
려면 2008년 7월 이전에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일각에선 국토부 등이 특혜 논란을
피하고자 시범사업 기준을 높여 잡는다고
본다.

개발이 추진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이르
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LH는 과거에도 구
로 일대 개발을 추진했으나 복잡한 토지 권
리관계,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측은 이번에 개발을
검토하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국토부 시범사
업과는 별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김호철 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노후
공장에 대한 재생 필요성 측면에서 준공업
지역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며 “도시 자족
기능 유지와 일자리 유지를 위해 준공업지
역 내에서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유지할
지 잘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하남 vs 수·용·성’ 이어 ‘일산 가좌 vs 파주’ 신경전 지하철 3호선 연장 놓고 경기 곳곳 ‘파열음’

전문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부 중재자 역할 필요”

“일산 가좌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간 마
을버스에 의존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3
호선 연장안은 대화·가좌마을역-운정-교
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부 전자민원
내용 일부)

서울 지하철 3호선 노선 연장안을 두고
경기지역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
다. 경기 남부에선 기존 하남시 3호선 연
장 논의와 별도로 ‘수원·용인·성남시’가 연
장노선 유치에 나섰다. 경기 북부에선 파
주 연장 노선을 놓고 고양시 일산서구 가

좌동과 파주시 주민간 ‘신경전’이 펼쳐지
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게시판에는 이달
들어 ‘3호선 가좌마을 연장’ 청원 글이 쇄
도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민자
사업으로 선정된 3호선 파주 운정 연장사
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연내 적격성
조사 의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철 노선이다. 현재 종점인 대
화역에서 파주 운정신도시까지 노선을 연
장할 때 가좌마을을 경유하면 더 돌아서

가게 된다. 하지만 가좌마을은 일산신도시
안에서도 교통이 불편해 지하철 노선 경우
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 남부에서는 하남 3호선 연장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원시와 용인시, 성남
시가 연장 논의에 뛰어들었다. 나라장터 홈
페이지에 따르면 세 지자체는 지난 7월 14
일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고하고 지
난달 31일 용역에 착수했다. 세 지자체는 서
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3호선 연장을 연계
해 논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애초 하남시로 3호선 연

장을 논의했다. 이후 3호선 연장 방안과
함께 경전철, 트램 설치안을 추가 제시하
면서 하남 지역민들의 큰 반발을 불렀다.
수원·용인·성남 연장안이 어떤 결과가 나
오든 하남지역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지만 정
부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치고 지역민 합의를 이끌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 타
당성이 있음을 전제로 지역민과 장기간에
걸쳐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
원은 “적절한 권한을 갖춘 ‘협상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한 중재가 필요하
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대ENG, 인니 또 수주 발릭파판 정유공장서 3건

수소첨가분해시설 1.7억 달러 규모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에서 1억7000만 달
러(약 2017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를 수주
했다. 이로써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발릭파
판에서만 총 3건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중인 발릭파판 정유공장에서 ‘수소첨가분해
시설(HCU) 증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40여억 달러(4조
7480억 원)에 달하는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와 올해 초 ‘황회수설비·수소생산
설비 설치공사’ 수주에 이은 두 번째 발릭파
판 정유공장 연계 추가 수주다. 총 사업 규
모는 1억7000만 달러이며, 이 중 현대엔지
니어링의 지분은 1억 달러(58.8%)이다.

이번에 공사하는 수소첨가분해시설은
경유를 촉매로 이용해 수소화 반응을 일으
켜 납사·등유 등을 제조하는 공정을 수행
하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증설공
사를 통해 수소첨가분해시설 처리 용량을
기존 하루 5만5000배럴에서 하루 6만 배
럴로 높여 발릭파판 정유공장의 생산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존 발릭파
판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보여
준 기술력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역량 등
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추가 수주로 이어
진 것 같다”며 “최근 해외 영업 활동에 제
약이 많지만 엔지니어링 경쟁력을 지속 강
화해 수주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
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금주의 분양캘린더

9월 셋째 주엔 전국 13개 단지에서
7600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견본
주택은 총 8개 단지에서 개관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13개 단지에서 7679가구(일반분
양 721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여의도 웨스턴힐’ 오피스텔
과 경기 수원시 원천동 ‘영흥공원 푸르지
오 파크비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 푸
르지오 라피아노’ 도시형 생활주택 1·2
단지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11개 단지에선 청약 당락이 갈린다. 서
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동우리츠힐
스’ 오피스텔과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
대구 센트럴 자이’, 경기 평택시 고덕면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 등에서 청
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13개 단지가 정당계약을 받는다.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8·14단지,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시흥시 정왕동 ‘호반써밋 더 프라임’ 등이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다. 8개 단지에선 견
본주택 문을 연다. 충남 천안시 신방동 ‘천
안신방 삼부르네상스’는 14일, 경기 남양
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 자금 디포레’ 등
은 18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14 (월)	오픈	충남	천안시	신방동	천안신방삼부르네상스	9/16 (수)	접수	경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에스아이펠리스 2순위								
	접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에스아이펠리스 1순위(당해지역)					광주시	삼동	힐스테이트삼동역 1순위(당해지역)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동우리츠힐스 ♣					수원시	원천동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 1순위(기타지역)								
			중랑구	상봉동	브르넌까사상봉 ♣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제일풍경채3차센텀 2순위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센트럴파크더스카이 2순위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베센트 1순위(당해지역)							
			부산	사하구	괴정동				괴정신동아파밀리에 2순위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2순위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호암A1(공공분양) 1순위	발표		계약	경기	경기	평택시	고덕면	힐스테이트고덕스카이스티								
	발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동우리츠힐스 ♣	9/17 (목)	접수	경기	광주시	삼동	힐스테이트삼동역 1순위(기타지역)					
			중랑구	상봉동					브르넌까사상봉 ♣					수원시	원천동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 2순위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14단지(공공분양) (~9/16) 고덕강일8단지(공공분양) (~9/16)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베센트 1순위(기타지역)				
	계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동우리츠힐스 ♣	9/18 (금)	오픈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힐스테이트자금디포레 ♣									
			중랑구	상봉동	브르넌까사상봉				여주시	교동	여주역우남파크빌									
			경기	김포시	장기동				김포한강신도시비명레우스리세느 (~9/17) ♠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공원에일린의들							
					화성시				봉담읍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B1) (~9/18)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B4) (~9/18)	중구	북산동	변영로센트리지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9/16)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완주푸르지오더퍼스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2지구중흥S클래스2차(B4) (~9/18)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역파라곤센트럴시티							
	9/15 (화)	접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에스아이펠리스 1순위(기타지역)	9/18 (금)	접수	경기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1차대방엘리움더퍼스티지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여의도웨스턴힐 ♣				경기	광주시	삼동	힐스테이트삼동역 2순위				
				수원시	원천동				영흥공원푸르지오파크비엔 1순위(당해지역)					화성시	봉담읍	화성봉담2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9/21)				
평택시				고덕면	평택고덕제일풍경채3차센텀 1순위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1단지 ♠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2단지 ♠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1순위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베센트 2순위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호암A1(공공분양) 2순위	발표	경기	부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평센트럴파크더스카이			
발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여의도웨스턴힐 ♣	9/20 (금)				발표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1단지 ♠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2단지						
			경기	수원시	이의동										e편한세상시티광교 ♣	계약	경기	성남시	신흥동	산성역자이푸르지오 (~9/25)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하이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대림파크													
계약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이랑금호어울림(공공분양)	9/20 (금)	발표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1단지 ♠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2단지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스타펠레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여의도웨스턴힐 ♣						
계약	경기	시흥시	정왕동	호반써밋더프라임 (~9/17)	9/20 (금)	발표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1단지 ♠ 청라푸르지오라피아노2단지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114

‘추미애 아들 의혹’ 檢 수사 탄력

추 장관, 사과문 통해 수사 촉구
위법 없었다지만 공정성이 핵심
신속·공정한 수사로 결론 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아들 서모(27)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사과와 함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정쟁의 중심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 만큼 파장이 커지면서 추 장관이 직접 나섰다. 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휴가 중 병가 연장이 특혜인지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는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 크게 세 가지다.

서 씨는 카투사로 근무하던 중 2017년 6월 1차 병가를 사용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2차 병가를 연장한 뒤 개인 휴가를 4일 추가했다. 서 씨가 부대 복귀 없이 연이어 휴가를 낸 과정이 논란이 됐다.

휴가 중 병가 연장 의혹은 국방부가 “규

정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에 대한 전산 기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살아 있다. 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경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서 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며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여론은 ‘특혜냐’, ‘보편적이나’를 놓고 뒤숭숭하다.

현재 서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자체만으로 젊은층이 가장 예민해하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상황이다.

구두로 휴가 연장을 통보하는 일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논란이 커질수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 장관도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실제적 진실을 밝히라”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갈등이 증폭될 경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국민이 분열되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다. 이후 야당 등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동부지검은 최근에야 8개월 만에 처음 관련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사안보다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늑장수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의혹만 넘치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라며 “정치색을 배제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팀의 신뢰성 문제는 검찰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앞서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근 검찰 인사를 통해 추 장관과 밀접한 인물들로 수사 지휘라인이 구성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이 의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도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추석맞이 벌초

추석을 보름여 앞둔 13일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조상의 묘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시위 도중 무너진 공장 펜스 주도한 노조 간부들이 배상해야”

대법 “높은 청구액, 노조 탄압 아냐”

폭력시위로 현대자동차 공장 펜스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노조를 괴롭히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인 A 씨는 2013년 7월 회사 명촌 정문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위대 300여 명에게 철조망을 뜯으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B 씨 등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펜스에 걸린 밧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가담했고, 이

과정에서 총 2800만 원 상당의 펜스 25m 가량이 무너졌다.

현대차는 이들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고장비 지출과 펜스 복구, 방어벽 설치비용 등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단적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너진 펜스 복구비용 2800만 원만 현대차에 지급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이재용 공소장에 드러난 ‘언론 압박’ 의혹

36억 의결권 위임 광고 발주

삼성 “檢 주장 불과… 문제없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통해 삼성이 언론사를 직접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삼성 미래전략실 홍보팀이 언론사가 유리한 기사를 쓰게 유도하고 합병

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사는 삭제하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삼성이 언론사 광고비 책정과 규모를 다르게 해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평소 교분을 형성해온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했다고 의심한다. 특히 이 부회장 승계작업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집행된 광고비 36억 원을 우호적 언론 보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합병 관련 기사를 가만 형태로 매

일 취합·점검하면서 합병에 역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기사 등은 제목과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을 압박한 것으로 봤다.

합병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 신문 대표에게 소속 편집국장을 해고하지 않으면 광고, 협찬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압박해 기사가 보도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의견 광고 게재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며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이 수사 결과로 주장하는 것일 뿐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아이들 편에서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세상

굿네이버스가 함께합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아이들 편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동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교통안전공단,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기술혁신 이끈다

한국판 뉴딜 발맞춰 도로·철도·항공 등 공공데이터 제공
디지털키 개발·중고차 안전거래 시스템 등 실생활 적용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키(사진)를 개발했다. 자동차키가 없어도 본인 소유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 문을 여닫거나 주행까지 가능하다. 이 디지털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종합정보'가 없었으면 탄생할 수 없었다. 개인소유차량의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 후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때 현대기아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종합정보를 통해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 후 사용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거나 주행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데이터 댐'이다. 산업 분야에 데이터 댐을 구축해 산업데이터의 수

집·가공·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 관점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뀔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현대기아차의 사례를 보면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기대가 커진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 관련 공공데이터 70건을 민간에 개방해 왔다.

공단에서 제공한 공공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는 현대기아차그룹 외에도 많다. 마가퐁팩토리는 자동차종합정보를 통해 자동차의 제원, 정비이력, 성능점검 등을 확인해 모바일 차량관리 앱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다. 소프트기획은 세차 관련 자동차 서비스 제공에, 금호타이어는 자동



차 타이어 규격 등을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데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 픽딜은 교통안전공단의 '중고차거래플랫폼'을 활용해 허위 매물로 인한 중고차 거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허위매출검증과 정비·수리 검증, 꼼꼼한 딜러리뷰 등을 주요 정보로 제공한다. 이달 8일부터는 카이즈유 연구소에서 '자동차등록데이터'를 활용해 제조사별, 지역별, 연령별 자동차 등록 현황 등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안전공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

으로 데이터 경제 및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철도·항공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연내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도로분야에 링크별 도로안전등급 등 4건 △철도 분야에 기관별 철도차량 현황 등 2건 △항공분야에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취득정보 등 3건 등이다.

올해 개방 대상 중에는 운행지역별 수요 응답형(DRT) 차량 대수를 개방하는 데이터도 포함돼 있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DRT 운행차량 대수 개방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분석 활용 및 배차계획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기관별 철도차량 현황 데이터는 철도차량 현황을 파악해 유동인구를 고려한 배차계획 연구가 가능하고 비행기 반입물품 정보 검색 현황 데이터는 반입물품정보를 개방해 비행기 탑승자 반입불가 물품정보 등의 혼동을 예방하고, 자격취득정보를 기반으로 향후 드론산업의 관련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도로분야의 링크별 도로안전등급 등 자료를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 및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철도 및 항공분야에서도 관련 통계를 활용해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권병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Ontant)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비대면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발굴을 통해 디지털 뉴딜 사업 가속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온택트란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농협,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안정 총력

채소 등 10개 품목 수급 관리

농협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상악화 등에 의한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9일까지 '농축산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농협은 채소, 과일, 축산물, 임산물 등 10개 품목을 수급대책 품목으로 선정,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격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협은 채소, 과일, 축산물 등 주요 수급대책품

목은 대책 기간 중 공급물량을 본격 확대해 수급 불안 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 배추, 사과, 배 등 주요 채소 및 과일은 계약재배물량을 활용해 평년대비 최대 1.8배까지 확대 출하하고 알뜰과일 선물세트는 10만 개 공급한다.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 축산물 공판장 도축 물량을 평년대비 최대 1.4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축 하나로마트 등 전국 2400여 개 판매장에서는 추석 명절 농축산물 대잔치를 개최해 농축산물, 제수용품, 추석 선물

세트 등 130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콕족 및 미귀성 고객 증가에 따라 e-하나로마트, 모바일, 유선 등 비대면 채널에 대한 고객 응대를 강화하고 할인쿠폰 증정 등 소비자 장보기 편의를 제공한다.

장철훈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요 채소류와 과일이 대체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추석 기간 중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어촌어항공단 '귀어 연착륙' 기술전수 나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귀어 희망인 성공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어업기술전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 어촌어항공단은 경남 어촌특화지원센터가 15일 '협업 매칭 과제 온라인 제안 발표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협업 매칭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협업이음터에 협업 과제를 등록한 후, 협업 수요기관과 협업 참여기관 간 제안발표와 온·오프라인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협업매칭 성사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협업이음터는 사업 추진 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될 때 필요한 역량(자원)과

뜻을 가진 협업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www.gwanghwamoon1st.go.kr)이다. 이달 7일까지 협업을 희망하는 기관이 총 20개 협업과제를 제출했고 어촌어항공단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제출한 과제가 1차 선정돼 15일에 협업 매칭 과제 온라인 제안 발표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 경남연합회, 멸치관현망수협 마산지소와 함께 귀어희망자들과 폐업 위기에 놓인 청년 어업인들을 위해 분야별 어업기술 전수·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웬스엔캐어 대표이사
전) 김정문알로에 대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빌라도 제값 받아야죠… 빅데이터로 시세 사각지대 해소”

W 기획 인터뷰 김진경 '빅밸류' 대표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그 중에서도 '대단지 아파트 공화국'이다. 흔히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로 통하는 소형 아파트 단지는 주택 시장에서 소외돼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을 받으려 해도 제값을 받기가 쉽지 않다. 시장이 대형 아파트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보니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는 시세를 평가할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변호사서 프롭테크 창업자로= 김진경 대표가 2015년 창업한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인 '빅밸류'는 이 빈틈을 공략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수집한 1000개 이상 데이터 속성을 바탕으로 빌라와 나홀로 아파트 시세 산정 알고리즘 솔루션을 만들었다.

현재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에 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 기관도 주택 가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빅밸류의 특채 전략이 은행이 어려워하던 부분에 적중했다.

김대표는 법조계와 증권업계, 스타트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력을 쌓았다. 그때마다 부동산과 인연이 이어졌다. 김대표가 변호사로 일했던 법무법인은 부동산 소송 특화 사무소였고 증권사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자산 유통화, 구조화 금융 등 부동산 금융 업무를 맡았다.

다양한 경험은 김대표가 빅밸류를 이끄는 밑거름이 됐다. 그는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산업)는 부동산도 알고 금융, 정보기술(IT)도 알아야 해서 창업이 힘든데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게 창업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는 동안 김대표에겐 마뜩찮은 부분이 생겼다. 그는 “부동산 금융 현장에서 일하며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의 불편이었다”고 말했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보니 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그에 맞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 '핀테크(IT 기술과 금융 간 결합)' 바람이 불고 정부가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면서 김대표는 직장 동료들과 창업을 결심했다.

◇정보 불균형, 금융 비용 상승으로= 김대표가 처음부터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시세 분석을 구상했던 건 아니다. 처음엔 자산관리서비스를 고민했지만 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틈새 시장이 보였다.

김대표는 “국내 주택의 60%에 달하는 연립·다세대주택과 40가구 미만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시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 주택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며 “상대적으로 서민 주택으로 분류되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정보 불균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고, 이게 서민들의 자산 가치 저평가와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빅밸류는 주택 가치를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매달렸다. 그 결과 2017년 연립·다세대주택 시세 정보 시스템인 '로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기술력으로 넘은 데스밸리= 스타트업의 고민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려면 그 상품을 팔아야 한다. 빅밸류도 같은 고민을 거쳤다. 서비스 공급을 위해 이 은행 저 은행은 찾았지만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사업 초기 사업계획서를 들고 투자 미팅을 다녔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개념조차 생소했던 당시에는 투자 유치 능커녕 서비스 시연조차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창업 초기 겪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떠올렸다. 빅밸류는 그럼에도 은행 문을 계속해 두들겼다. 김대표는 “부동산은 신뢰가 산업”이라며 “진입 장벽은 높지



서울 중구 태평로 사무실에서 만난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부동산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부동산 금융 혁신을 이루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만 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많고 관련 인프라도 갖춰진 대형 은행과 첫 계약을 맺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빅밸류는 기술력으로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창업 후 자금 마련이나 시장 진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을 넘겼다. 김대표는 “은행 내 여러 부서와 만나면서 빅밸류가 가진 데이터와 관련 기술력을 보여주고 은행이 가진 데이터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높은 신뢰도와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 이후 지금까지 빅데이터 및 AI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한 특허도 다섯 개 취득했다”며 빅밸류 알고리즘을 자랑했다.

대형 아파트 중심 주택대출 시장 ‘소외’ 빌라·소형아파트는 저평가

‘프롭테크’ 접목 시세 서비스 제공 AI 알고리즘 관련 특허 5개 취득

2018년 금융위 ‘지정대리인’ 지정 1년 만에 매출 5배 증가 성장가도



이용할 수 있게 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마련했다. 김대표는 “데이터 수집·축적·유통과 이를 통해 새로운 융합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는 빅밸류의 비즈니스 모델과도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서비스에 활용하는 데이터 범위가 더욱 확대하려 한다. 빅밸류는 데이터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제휴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김대표는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원재료인데 신뢰성과 공급 안정성을 갖춘 민간 데이터 인프라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도 말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이 열리다보니 기존 산업과 충돌도 생겼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5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빅밸류와 김대표를 서울서부지법에 고발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을 금지한 감정평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말을 아끼면서도 “규제 완화가 한시적인 부분도 있다보니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선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했다. 프롭테크 업계에서 이번 법리 공방이 기술 혁신을 둘러싼 신규 산업 간 ‘부동산 판 타다 사태’로 주목한다.

◇“부동산 금융 혁신 선도하는 게 목표이자 포부”= 빅밸류는 올해 그간 성장세에 더 속도를 내려고 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대표는 “코로나19도 겹치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한데 내부적으로 사업 환경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은 데이터화(化)됐을 때 효용이 큰 분야다. 데이터화가 될 때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도 크다”며 “부동산에 데이터를 접목하면 시장을 효율화하고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휴온스

엘루비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기준, 2020년 4월

메노락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원료 L.acidophilus YT1의 인체적용시험결과
- 여성 갱년기 상태지수(KI) 11가지 총점 개선
- 갱년기 삶의 질 평가 지수(MENQOL) 4가지 항목 개선 확인



소비자 상담실 | 080-447-4700
판매사 (주)휴온스 | 제조사 (주)알피바이오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_{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_{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언택트 시대 반도체의 쓰임새 배울 수 있었죠”

SK하이닉스 기업광고 출연한 배우 문태유·박성준 씨

선배·후배 반도체로 의인화해 기술적인 내용 쉽게 풀어내
광고 작업하며 “대기업 조직문화는 딱딱하다” 편견 사라져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으며 ‘국민 광고 맛집’으로서의 명성을 확인한 SK하이닉스가 이달 새로운 기업광고 영상 ‘언택트편’을 공개했다. 언택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반도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이야기를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SK하이닉스는 특히 이번 광고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서 용석민 역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문태유 씨와 드라마 ‘우아한 친구들’에서 천만식 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배우 박성준 씨를 캐스팅해 화제가 됐다.

두 배우는 반도체를 의인화한 광고에서 각각 ‘선배 반도체’와 ‘후배 반도체’ 역할을 맡았다. 이번 광고는 사람이 아닌 반도체를 연기해야 하는 만큼, 캐릭터 분석에 있어 고민해야 할 포인트가 많았다.

‘후배 반도체’ 역할을 맡은 박성준 씨는

사물을 연기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반도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의 인물 그 자체로 캐릭터에 접근했다. 그는 “반도체를 연기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동네의 여러 민원을 처리하는 동사무소의 직원이 됐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선배 반도체’ 역할을 맡은 문태유 씨는 이전의 뮤지컬 작품에서 로봇 캐릭터를 연기했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되살려 여러 가지 연기 톤을 준비해 간 것이 실제 촬영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기를 통해 다양한 언택트 기술의 작동 원리를 직접 체험하면서 낯설게만 느껴졌던 반도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문 씨는 “평소 온라인 배달 서비스 등 모바일 플랫폼을 애용하면서도 막상 기술적인



SK하이닉스가 새로 선보인 기업광고 영상 ‘언택트편’에서 ‘선배 반도체’ 역할을 맡은 문태유(왼쪽) 배우와 ‘후배 반도체’ 역할을 맡은 박성준 배우.

인프라에 대해 생각해 보진 못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번 촬영을 통해 반도체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ICT 기술 이야기를 쉽고 재치 있게 풀어낸 이번 영상을 통해 ‘대기업의 조직문화는 딱딱할 것’이라는 편견도 사라졌다. 박 씨는 “어려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일수록 엄격하고 경직된 분위기일 거라는 고정

관념이 있었다”며 “하지만 매번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롭고 흥미로운 콘셉트로 브랜드 스토리를 풀어내는 SK하이닉스를 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기업의 이미지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두 배우는 “여러모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따뜻한 감성의 기술 이야기가 담긴 SK하이닉스의 영상 콘텐츠들이 많은 분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한국지엠, 윤명옥 홍보부문 전무

한국지엠(GM)이 윤명옥 GM 해외사업부문 홍보 담당 상무를 한국 신임 홍보 부문 전무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식 임기는 내달 1일부터다.

윤 전무는 지난해 GM에 입사한 뒤 GM 해외사업부문의 기업 및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 왔다. GM 입사 이전에는 GE헬스케어의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등 1997년부터 23년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내 커뮤니케이션,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CSR 등 다양한 홍보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윤 전무는 앞으로 GM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일원으로 한국지엠,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등 한국 내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편, 지금까지 홍보 부문을 이끌어 온 황지나 부사장은 이달 30일부로 퇴임한다. 황 부사장은 2012년 GM에 입사한 뒤 9년간 한국 내 홍보 부문을 총괄하며 한국 사업장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유창욱 기자 woogi@



SK(주) ‘트루컴퍼니’ 대상...장애인 고용 활성화 평가

SK(주)는 장애인 고용 최우수기업으로 2020년 ‘트루컴퍼니’ 대상(大賞)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트루컴퍼니상은 매년 기업들의 장애인 채용 계획과 실천, 채용 우대 방안, 인식 개선 교육, 근로 환경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다.

SK(주)는 여러 장애인 직무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 등 장애인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료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증장애인 위주로 고용을 확대해 전체 장애인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 점도 대상 선정 사유 중 하나라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밝혔다.

SK(주)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3%로 2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3.54%로 늘었다. 이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전체 직원의 3.1%)을 웃도는 수준이다.

SK(주)의 사업부문인 C&C는 IT 직무를 중심으로 장애인 구성원을 채용해 왔다. 지난해에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대상 전문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해 바리스타 교육 수료생과 올해 신규 채용한 구성원까지 36명이 SK(주) C&C 사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US오픈 테니스 우승 오사카, 마스크에 쓰인 이름은...

오사카 나옴이(9위·일본)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전에 앞서 헤드폰을 벗고 있다. 오사카가 코트에 입장하며 쓴 마스크에는 ‘타미르 라이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오사카는 이번 대회 내내 사람 이름이 적힌 마스크를 쓰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1회전 경기에 ‘브리오나 테일러’라는 이름이 적힌 마스크를 쓴 이후 엘리야 매클레인, 아흐무드 아바리, 트레빈 마틴, 조지 플로이드, 필란도 카스티에, 이들은 미국에서 인종 차별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숨진 흑인 피해자들이다. 오사카는 이날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빅토리아 아자리anka(27위·벨라루스)에게 2-1(1-6 6-3 6-3) 역전승을 거두며 개인 통산 세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뉴욕/AP연합뉴스

코로나, 모통이 돌고 있다?
트럼프 정면 반박한 파우치
“백신 올해말이나 내년초 나올 것”

앤서니 파우치(사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대유행) 상황



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또 들어받았다.

1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통이를 돌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정말로 모통이를 돌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저기 있다고 믿는다”며 낙관론을 펼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파우치 소장은 이날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련 통계를 보면 하루 신규 확진자 4만 명, 사망자 1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준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고비를 넘겼다고 봤지만, 파우치 소장은 여전히 많은 수준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여기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양성 판정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긴장을 놓칠 수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1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서영 기자 j0ung2@

■ 부음

재즈베이스 연주자 게리 피콕

재즈베이스를 새로 운영역으로 인도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리 피콕이 별세했다. 향년 85세.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피콕이 4일 뉴욕주 올리브브릿지의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935년 아이다호에서 출생한 피콕은 피아노 연주자였지만 20세 무렵 베이스로 악기를 바꿨다. 피콕은 피아노 연주자 키스 자렛 트리오에서의 연주로 국내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연주자다. 자렛의 명상적인 연주에 깊이와 존재감을 더해주는 연주로 찬사를 받았다.



흑인 밴드 ‘쿨 앤드 더 갱’ 로널드 벨

대중 음악계에서 영향력이 강한 흑인 밴드 중 하나로 꼽히는 ‘쿨 앤드 더 갱’의 주축 로널드 벨이 별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벨이 9일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자택에서 6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쿨 앤드 더 갱’에서 색소폰을 연주했던 벨은 1981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서 1위에 오른 ‘셀레브레이션’을 작곡하기도 했다. 곡 발표 이후 40년간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 노래는 이슬람교 신도인 벨이 호텔에서 읽게 된 쿠란의 한 대목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기호 씨 별세, 문명학(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 씨 부친상 = 13일, 경남 양산 웅상중앙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055-912-4440

■ 인사

◆교육부 ◇부이사관 전보 △교육부(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부단장 지원 근무) 오성배 ◇서기관 전보 △학교안전총괄과장 김태경 △대학재정장 학과장 최우성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미래학교 추진팀장 배정익 △교육시설안전팀장 김관영 △고등교육정책실 강양은 △교육복지정책국 허영기 △교육부(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 지원 근무) 정봉출 △교육부(국외훈련) 이지은 △한국교원대 이규열 △충북대 양현오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고규창 △정부혁신조직실장 한창섭 △지방재정경제실장 박재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이인재 ◇실장급 승진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조소연 ◇국장급 전보 △정부혁신기획관 이정렬 △조직정책관 김성중 △공공서비스정책관 정구창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민소통실장 조현래 △해외문화홍보원장 박정렬

◆보건복지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 박인석 △인구정책실장 고득영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국장급 △정책기획관 이강호 △복지정책관 박민수 △보육정책관 정호원 △정신건강정책관 염민섭 △첨단의료지원관 임을기 ◇과장급 △기획조정실 양지협력담당관 정혜은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은철 ◇3급 승진 △국제협력담당관 정혜영 △고용보험기획과장 임동희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권병희 ◇과장급 전보 △고객지원팀장 김소연 △고용정책총괄과장 편도인 △일자리정책평가과장 황효정 △일학습병행정책과장 박희준 △임금근로시간과장 장현석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자동차관리관 윤진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 이운상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명섭 △혁신행정담당관 김석기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물류정책과장 김배성 △자동차정책과장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과장 김명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정진훈

◆인사혁신처 ◇고위 공무원(국장급) 승진 △공무원노사협력관 박용수 ◇과장급 전보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이흥균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이은경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박영옥 ◇부이사관 전보 △법제지원총괄과장 김은영 ◇서기관 전보 △법제조정법제관 김태현

◆조달청 ◇과장급 전보 △혁신조달과장 임현익

◆질병관리청 ◇실장급 △차장 나성웅 ◇국장급 △기획조정관 배경택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 양동교 △위기대응분석관 이상원 △감염

병정책국장 박혜경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조은희 △감염병진단분석국장 유현권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 김성곤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김성순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강민규 △국립보건연구원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 김성수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장 이주연

◆한국전기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장 김종문 △에너지신산업연구센터장 정구형 △강소특구기획실장 장석훈 △기술사업화실장 오경연 △기업총괄지원실장 우병철 △충무복지실장 노병욱

◆중앙그룹 △중앙일보M&P 경영지원팀장 정희석 △JTBC스튜디오 제작본부 제작4팀장 이해광

◆국민일보 △베이지특파원 권지혜 △대외협력국 기획담당 부국장·논설위원 노석철

자본시장 속으로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고, 부동산을 향한 규제의 칼날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자금유입 환경을 개선만 해준다면 돈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은 2.5배인 데 반해 주식시장은 1배도 못 미친다. 올해 국내 증시도 올랐지만,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더 급격히 늘어났다.

길게 보면 돈은 증식할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돈 모으기 좋은 시장은 금리가 높은 편이다. 돈이 돈을 벌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가 위축될 때는 돈 벌 확률이 낮아 보나 금리 역시 박하다. 돈이 경제 생태계 구석구석까지 흘러갈 때, 비로소 경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멋진 미래는 돈의 물꼬가 성장으로 향할 때다.

아마존이 국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지 오래다. 애플 생태계의 프리미엄은 나머지 IT하드웨어 기업들의 가치 생태계마저 지배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사주를 매각해야 운용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도 재무구조가 건실한 자동차 기업 가치보다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성장주들은 당장 성장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는 데도 과도하게 미래 가치가 먼저 반영되면서 출렁인다.

최근 주목받는 성장주들의 공통점은 ‘혁신’이다. 살아남는 기업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는다. 애플 역시 그렇다. PC로 시작했지만, 아이폰을 만들고, 스스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진화했다.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기술을 접목해 미디어 산업을 접수했다.

기업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기업은 창업 후 제품을 출시한 뒤, 손익분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이후 정체 국면에 들어선다. 국가 성장 역시 기업과 다르지 않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청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로 접어들고 있다.

10년 전 한국 증시와 자금을 비교해보면,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소재·산업재·금융 기업들이 차지하는 규모는 여전히 크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 자기자본순이익률(ROE)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함께 낮아진 배경이다. 즉, 이들이 그동안 국내 증시를 뒷받침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ROE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이 됐다는 의미다.

한국의 낮아지는 ROE를 살리는 길은 성장성 높은 기업들이 이들을 얼마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과거 경제 산업의 비중을 얼마나 빨리 대체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결국 정책과 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부동산보다 동산이 해법이다. 혁신 생태

계로 돈을 유입시킬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유형자산을 토대로 이익을 창출했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성장주는 플랫폼 등 무형자산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돈을 집이나 토지로 바꾸기보다 좋은 기업의 주식으로 바꿀 때, 우리도 무형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ROE 개선에 힘입은 한국 증시의 PRB 재평가는 이런 변화가 이뤄진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뉴딜펀드를 제시한 배경에도 이 같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다. 물론, 선의로 가득한 정책이지만 아쉬움도 그만큼 크다. 특정 투자 대상 기업과 산업을 위해 인위적인 자금 투입을 ‘펀드’라는 형식을 빌려 했기 때문이다. 보이는 손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은 정책보다 시장 기능을 믿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보다는 민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더 중요한 배경이다. 이에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지배구조 관련 법안이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이 더 시급하다. 아쉽게도 아직 그런 변화는 뒤따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금액은 너무

낮고, 주식시장에 장기투자자에 대한 공제도 없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형태의 주주환원도 동인이 부족하다. ROE를 높이기 위한 배당 유인 역시 요원하다. 여전히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 가능한 한국적 지배구조는 개선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

예금 금리가 1%도 안 되고, 부동산을 향한 규제의 칼날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자금유입 환경을 개선만 해준다면 돈은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부동산은 2.5배인 데 반해 주식시장은 1배도 못 미친다. 올해 국내 증시도 올랐지만, 부동산의 자산 규모는 더 급격히 늘어났다.

증시는 유동성의 힘만으로 치고 나갈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는 더 커졌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 물량 출회는 불가피하며, 미국 대선에 불확실성도 크다. 미국 성장주 급등으로 인한 변동성 팽창도 이미 시작되었다. 9, 10월의 변동성 구간에서 성장기업이 오늘날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에 도달할 때를 기다려보자. 준비한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시점은 바로 그때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세금, 세금, 세금!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말거리가 되고 있다. ‘길거리 조세저항’도 보인다. 세금과 함께 복지도 입담에 오른다. 진정한 복지는 노동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기업 중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복지를 전담한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세금이 강조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 국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올렸고, 양도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도 의도적으로 높였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도 세금이 올라갔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7.2%)까지 인상됨에 따라 10여 년이면 원본 잠식이 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양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20%포인트가 가산되는 징벌적 과세가 됨으로써, 최고 79.5%의 세율(소득세율 45%+지방소득세율 4.5%+추가율 20%)이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놔야 해서 양도를 주저하게 된다.

이런 조세체계였다면 다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1년간의 짧은 기간만 주고 처분하라고 한다. 재산을 수탈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미래예측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폭등하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 대책으로 헌법에서 ‘주택개발정책’ 등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 부과에 앞서 번듯한

주택개발정책이 먼저 필요하다.

‘세금’으로 모든 국가정책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쉬운 정책 수단은 없다. 못사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저소득 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 세법을 못 바뀔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경제전쟁에서는 최첨단 기술로 이겨야 국가경제가 튼튼해지고 국민복지도 실현된다. 현대 국가들은 ‘세금에 기초한 국가 주도의 나라’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민간 주도의 나라’를 지향한다. 국가는 민간보다 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일부는 반드시 저소득자에게 전가된다. 살아 있을 때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을 필요는 없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 천재·과학자 등을 키워, 일반인보다 소득이 10배, 100배 많은 고소득자를 더욱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제가 산다. 최첨단 기술로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서는 선택의 여

지가 없다. 세율은 낮고 세원은 넓게 운영해야 한다.

국가 정책에서 세금을 너무 강조하면 성장동력은 상실되고 국민저항만 키운다. ‘길거리 조세저항’ 혹은 국민저항’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세금은 인간의 꿈·도전·열정을 잃게 하여 국가를 혼돈다. 세금은 만능의 정책수단, 즉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세금을 너무 과용하지 말고 본질로 가야 한다. 주택에는 ‘주택개발정책’ 등 종합적 부동산 정책이 요구되듯이, 모든 국가정책에는 세금에 앞서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적재적소의 종합적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세금은 국가정책에서 너무 앞세우지 말고 부수적으로 뒷순위로 남아 있어야 한다. 세금을 맨 앞에 세워 부각시키는 것은 주요 추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과중한 세금은 ‘불’과 같이 저항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민의 입에서 세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아야 한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마거릿 생어 명언
“어머니가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뜻대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어떤 여성도 스스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 여성운동가. 다산과 빈곤이 모자(母子) 사망률을 높인다고 본 그녀의 산아제한 노력으로 의사가 피임을 지지하는 권리를 인정받게 되고, 국제산아제한연맹도 조직되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879~1966.

☆ 고사성어 / 옥석혼호(玉石混淆)
옥과 돌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다는 말. 동진(東晉) 시대 갈홍(葛洪)이 지은 포박자(抱朴子) 외편상박(外編尙博)에 나온다. 갈홍은 쉽고 편안한 것만을 찾는 세태를 한탄하며 천박한 글에 사람들의 마음이 휩쓸리는 것을 애석해했다.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옥과 돌이 뒤섞이며(眞偽顛倒 玉石混淆) 아악(雅樂)도 속악(俗樂)과 같은 것으로 보고 아름다운 것도 누더기로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 시사상식 / 공매도(空賣渡, short stock selling)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 우리말 유래 / 애
창자(腸子)의 옛말. ‘애타다’는 ‘너무 걱정이 되어 속이 타는 듯하다’, ‘애간장을 저민다’는 ‘창자와 간장을 저미는 것과 같이 몹시 고통스럽다’라는 뜻.

☆ 유머 / 하느님은 예외
설교 중 휴대폰이 울리자 목사가 예배 시간에는 전화를 끄는 게 예의 아니냐고 훈계했다. 설교를 다시 시작하려는데 이번엔 목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교인들이 쳐다보는 데서 전화를 꺼내 받으며 목사가 한 말. “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접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재훈 IT중소기업부/yes@

OTT ‘토종연합군’ 용두사미로 끝나

고 넷플릭스와 소송을 벌이다 보니 제휴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처지다.

국민들은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국내 통신사의 현실에 혀를 차고 있다. SK텔레콤은 KBS·MBC·SBS 등 지상파와 손잡고 토종 OTT인 ‘웨이브’를 론칭했고, 최근에는 그것도 모자라 ‘오션’이라는 단독

OTT 상품을 추가했다. KT는 ‘시즌’을, CJ ENM은 ‘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JTBC는 CJ ENM과 ‘티브’ 연합을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독립군 격인 ‘왓챗’은 외판설처럼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와 맞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결집력이다.

정부가 아무리 ‘토종 연합군’을 외쳐도 넷플릭스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나마 통신 3사는 넷플릭스대항마로 ‘이이제이(以夷制夷:적을 통해 적을 제압하는 전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넷플릭스가 수조 원의 대자본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만큼 그에 버금가는 디즈니플러스·아마존TV 등을 모두 수용해 넷플릭스를 견제하겠다는 교육지책이다.

이래선 곤란하다. 최근 카카오톡TV는 론칭 일주일 만에 1300만이라는 조회수 기록을 달성했다. 성공 비결은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의 힘이다. 여타 기업들 역시 내실 다지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아시아나항공 ‘노딜’ 누구 탓인가

국내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자금난에 봉착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산업은행을 대표로 하는 채권단의 관리 체제로 들어갔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국유화가 아닌 정상화 후 매각 재추진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민영화된 1969년 이후 50여 년 만에 낡은 ‘국영항공사’의 타이틀을 갖게 된다. ‘주인 없는’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작업은 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 및 경영권 확보라는 산업은행의 전형적인 기업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제 시장에서는 노딜(매각 무산) 선언에 따른 ‘책임’과 앞으로 벌어질 이해관계자들의 ‘이권’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책임에 따른 이권은 비슷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의 분석이 맞겠다. 표면적으로 따졌을 때 이번 노딜의 귀책 키워드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금호산업 △채권단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압축된다. 여기에 이해관계자 모두가 노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코로나19’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겠다. 현산이 2500억 원의 계약금 문제를 놓고도 인수를 포기한 데는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유례없는 불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앞서기 때문이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현산 간의 책임 공방은 계약금 분쟁으로 집착할 수 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코로나19로 인

데스크칼럼

안철우
금융부장



한 손실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장기간 재실사 요구안을 고수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현산은 거래종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이는 금호산업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2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코로나19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실사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무산 사례와 동국제강의 쌍용건설 인수 보증금 반환 패소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이 엇갈릴 수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기내식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83억 원의 과징금 논란도 매각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예상 밖의 손실이 발생해 현산 입장에서는 계약을 깰 좋은 구실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 12월 현산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320억 원 수준의 잠재적 손실을 반영토록 해 공정위의 과징금 논란은 명분이 약하다.

어디 하나 딱 부러지는 말이 없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항공산업 구조조정이 다

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2300%에 이른다. 자본잠식률도 50%에 육박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000억 원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업황 부진을 고려할 때 자칫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되기에 십상이다. 과거 부실기업을 지원할 때 압박했던 강력한 구조조정의 조건이 불행히도 충족됐다. 모빌리티기업 도약을 위해 아시아나 인수를 추진했던 현산이 ‘꿈’보다는 ‘현실’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위기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구조조정이 반복될 때마다 ‘대량 실업’이라는 공포에 빠졌다. 정부가 약 9000명에 가까운 아시아나 임직원의 고용 불안 때문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구성원들의 희생만 강요하기보다, 정부의 지원도 수반돼야 하는 시장의 원리다. 이젠 대주주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시점이다. 박상구 당시 회장의 경영부실 책임부터 어느 누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앞으로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8000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 37%로 최대 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대주주는 철저한 감자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채권단이 경영진 교체 등 경영혁신과 자구책을 요구해야 한다. 채권단은 최근 2년 사이 아시아나에 매각을 전제로 3조3000여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분을 합하면 5조70000억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다.

acw@

고용동향 제대로 읽기

곽도흔의 共有하기



정치경제부 차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통계청이 이달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이슈페이퍼를 냈다.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주로 취재하면서 매달 나오는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기사화하는 처지에서 전혀 새로운 분석이라 칼럼을 이용해 널리 알리고 싶은 생각이다.

통계청은 8월 고용동향을 통해 8월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27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만 명 감소한 3월 이후 6개월 연속이다. 27만 명, 많으면 많아 보이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김유선 이사장의 분석을 보면 역시나 그렇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고용지표는 계절 요인의 영향도 받지만 그밖에 경기변동, 불규칙 등 여러 요인의 영향

을 받는다”며 “요즘처럼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초미의 관심사일 때는 전년 동월 대비보다 전월 대비 또는 코로나19 위기 전인 2월 대비 자료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분석대로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취업자가 무려 60만 명 감소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때는 ① 계절조정 자료를 사용하면서 ② 2월 대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고용지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 위기 전인 2월과 비교하면 3월 취업자는 68만 명 감소했고 4월 취업자는 102만 명, 5월 87만 명, 6월 79만 명, 7월 71만 명, 8월 6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또 2월 대비 3월 취업자는 68만 명 감소했고 3월 대비 4월 취업자는 34만 명 감소했다. 5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4월 대비 5월 취업자는 15만 명 증가했고, 5월 대비 6월 취업자는 8만 명, 6월 대비 7월 취업자는 7만 명, 7월 대비 8월 취업자는 11만 명 증가

했다.

5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은 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②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됐으며 ③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 효과에도 2월 대비 8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감소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끼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그 상처가 오래갈 것임을 말해 준다”고 언급했다.

참고로 코로나 위기 여섯 달째 취업자 감소(60만 명)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동안 취업자 감소(25만 명) 폭은 크게 넘어서지만, 외환위기 첫 여섯 달 취업자 감소(141만 명) 폭에는 못 미쳤다.

김 이사장은 “8월 실업자는 4만 명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실업자 추이보다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친 무직자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9월 고용동향부터는 제대로 기사를 써야겠다.

soqood@

사설

신용대출 급격한 증가, 리스크 관리 급하다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월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172억 원으로, 9월 들어 열흘 동안 1조1425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9월에도 사상 최대(4조755억 원)를 나타냈던 8월 증가액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올해 5월까지 전월 대비 1조 원대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가 6월(2조8374억 원), 7월(2조6760억 원) 급격히 늘어났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주택 관련 자금을 신용대출로 끌어쓰는 ‘풍선효과’에, 과열양상을 빚는 주식투자자금의 대출수요가 많아졌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움이 심해진 가계의 생활자금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저금리로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현재 연 1.85~3.75% 수준이다. 2~4% 정도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까지 겹쳐져 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금리가 훨씬 비싸고 저신용 차주(借主)가 많은 캐피탈·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신용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 집계 따르면 2금융권 개인 신용대출은 6월 4000억 원, 7월 8000억 원, 8월 9000억 원씩 늘었다.

신용대출은 사실상 용도를 알 수

없는 ‘깜깜이’ 대출이다. 게다가 주택대출과 달리 담보조차 없다. 차주가 빚을 못 갚을 경우 고스란히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금융회사 건전성에 타격을 주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신용대출 실태 조사에 나선 모습이다. 우선 급증한 대출자금이 쓰인 용도를 확인해, 부동산 규제를 우회한 편법 대출을 감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생활고로 생계자금의 신용대출이 절실한 가계와, 코로나 피해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돈줄까지 막힐 가능성 때문에 선불리 규제하기도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

그럼에도 짧은 기간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투자에 돈이 몰리면서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한데,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 금융시스템에 심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담보도 없는 빚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이다.

어느 때보다 신용대출의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출 건전성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신용대출 부실이 자칫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미리 보는 한 주 OECD·ADB 수정경제전망, 한국 성장률은

이번 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 전망을 내놓고, 한국은행은 2분기 국내 기업의 기업경영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6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국내 기업의 경영 수익성은 어느 정도 악화했는지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이다.

우선 ADB는 15일(화) ‘아시아경제전망 수정 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ADB는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1.3%로 내린 데 이어 6월엔 -1.0%로 다시 하향 조정했다. 다음 날인 16일(수)엔 OECD가 ‘중간경제전망’을 공표한다. 앞서 8월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며 재확산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성장률이 다시 낮춰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은 15일 2분기 ‘기업경영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 약 4000개 기업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로,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 탓에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기업 부채비율(88%)은 직전 분기(84.3%)보다 높아졌다. 코로나 19 충격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악화가 2분기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같은 날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도 공개된다.

해외 이벤트로는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초점이 맞춰진다. 지난 잭슨홀 회의에서 평균물가 목표제로의 전환을 발표한 만큼 이번 회의 성명을 통해 장기금리 유지할 것인지를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부양 의지를 어느 정도 밝힐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 표가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주목된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SAMSUNG

신혼집 공간에 딱 맞는
삼성 신혼가전과 함께
당신은 **예쁘게만 사세요**



슬림하고 가벼워서
주방 어느 공간에도 잘 맞는
더플레이트

대형 화면을 가까이에서 봐도
부담 없는 초고화질
QLED 8K

빌트인도, 따로 설치도 가능해
신혼 주방에 딱 맞는
BESPOKE 식기세척기

집안 구조에 따라
위 아래로도, 옆으로도
설치가 자유로운 **그랑데^시**

크기도 공간도 고민 많은 당신의 마음을 잘 아니까

우 리 의 첫 가 전
삼성 신혼가전

이제는 가전을 나답게.